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4 | No.163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와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중요성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4 | No. 163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2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1
(7) 석유화학	33

(8) 섬유	34
(9) 가전	35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9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1.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와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중요성	65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4 | No.163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4월 28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올 2월 중 생산 보합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약세 등 전반적으로 실물경기 하강세를 시사
 - 연준이 지난 3월 FOMC 회의 결과 2023년 말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한 가운데 은행위기 우려감 속에 기준금리를 4.75~5%로 25bp 인상
- 일본은 1월 생산 급감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존은 연초 역대 생산 및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미약하나마 동반 증가세를 시현
 -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LPG 보조와 저소득가구 지원(30만 원) 등을 포함하는 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한 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의 은행위기 확산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
- 중국은 연초 소비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실물지표들이 지난해 말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 감소세 역시 전년 말과 달리 둔화 양상
 -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을 배경으로 2023년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3개월 만에 다시 지급준비율 25bp 인하를 단행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미국	실질GDP ¹⁾	5.9	2.1	-0.6	3.2	2.7				
	산업생산	4.9	3.7	1.2	0.3	-0.9	-0.6	-1.4	0.3	0.0
	소매판매	19.8	9.2	2.4	0.8	0.2	-1.1	-0.8	3.2	-0.4
	무역수지 ²⁾	-845.0	-945.3	-252.2	-207.0	-205.0	-60.6	-67.2	-68.7	-70.5
일본	실질GDP	2.1	1.0	1.2	-0.3	0.0				
	광공업생산	5.6	0.1	-2.7	5.9	-3.0	0.2	0.3	-5.3	-
	소매판매	2.0	2.6	1.3	1.3	1.2	-0.2	0.3	0.8	-
	무역수지 ²⁾	-1,784	-19,966	-4,596	-6,312	-5,662	-2,032	-1,459	-3,499	-
유로	실질GDP	5.3	3.5	0.9	0.4	0.0				
	산업생산	8.0	2.1	0.5	0.4	-0.3	1.4	-1.3	0.7	-
	소매판매	5.1	0.8	-0.4	-0.7	-0.9	0.6	-1.6	0.3	-
	무역수지 ²⁾	110.7	-325.3	-97.6	-122.3	-56.5	-14.0	-13.4	-11.3	-
중국 ³⁾	실질GDP	9.1	3.0	0.4	3.9	2.9				
	산업생산	9.3	3.4	0.6	4.8	2.8	2.2	1.3	-	2.4
	소매판매	12.4	-0.8	-4.9	3.5	-2.7	-5.9	-1.8	-	3.5
	수출(달러화)	29.6	7.0	28.1	20.1	2.3	-9.0	-9.9	-	-6.8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4월 초 미 달러화 약세 및 OPEC 감산 여파로 유가 강세

- 달러화는 3월 초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등의 여파로 미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4월 들어서는 실물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약보합. 달러화는 3월 중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2.4% 하락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0일
엔/달러	133.27	138.96	144.74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3.61
달러/유로	1.0220	1.0054	0.9802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0859
미 국채 (10년 만기)	2.65	3.19	3.83	4.05	3.61	3.87	3.51	3.92	3.47	3.42
WTI유	98.6	89.6	79.5	86.5	80.6	80.3	78.9	77.1	75.7	79.7
두바이유	105.8	95.6	90.1	90.0	80.2	78.7	79.3	81.3	76.8	86.2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올해 들어 4월 초 현재까지 엔화 대비 1.3% 상승, 유로화 대비 1.4% 하락
- 유가는 지난 3월 중 미 실리콘밸리은행 및 시그니처은행 파산,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등의 영향으로 60달러대까지 하락한 이후, 글로벌 은행위기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4월 초 OPEC의 예상치 못한 감산 발표로 80달러대로 급등세
- WTI유 가격은 3월 중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대까지 하락하고, 4월 초 OPEC의 자발적 감산 공표 이후 80달러대로 2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2.4%로 증가세 확대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4%로 증가세 확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7%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상반기	연간	상반기	연간	11월	12월	1~2월
공업 전체		15.9	9.6	3.4	3.6	2.2	1.3	2.4
섬유	방직	11.8	7.5	-2.5	-6.6	-11.1	-10.3	-11.2
	화학섬유	17.1	9.1	0.5	-1.0	-4.3	-11.6	-6.0
화학	에틸렌	26.6	18.3	1.4	-1.0	4.6	4.6	-1.7
	플라스틱원료	12.3	5.8	1.0	1.5	2.4	1.2	0.9
	플라스틱제품	18.2	5.9	-3.2	-4.3	-6.1	-10.5	-7.4
철강	선철	4.0	-4.3	-4.7	-0.8	9.7	-4.6	7.3
	조강	11.8	-3.0	-6.5	-2.1	7.3	-9.8	5.6
	강재	13.9	0.6	-4.6	-0.8	7.1	-2.6	3.6
비철금속		11.0	5.4	1.0	4.3	8.8	7.3	9.8
기계	금속절삭기계	45.6	29.2	-7.3	-13.1	-13.2	-11.7	-11.8
	소형트랙터	27.6	2.2	-17.3	-11.5	0.0	-17.6	26.1
	대기오염방지설비	25.6	15.4	0.7	4.3	8.2	27.8	37.4
	발전설비	17.4	9.9	9.4	17.3	12.5	42.2	-1.9
자동차		26.4	4.8	-2.1	3.4	-9.9	-16.7	-14.0
조선		19.1	8.0	-11.1	-4.5	-31.3	-7.8	-21.9
전자	세탁기	33.5	9.5	-4.1	4.6	12.9	5.4	1.8
	냉장고	18.8	-0.4	-6.2	-3.6	-7.0	-5.0	7.9
	에어컨	21.0	9.4	1.1	1.8	-10.7	-9.9	10.8
	컬러TV	5.6	-3.6	5.8	6.4	1.2	-8.3	-4.7
	컴퓨터	40.6	22.0	-4.4	-8.1	-28.0	-19.3	-23.5
	반도체	48.1	33.3	-6.3	-11.6	-15.2	-7.1	-17.0
	휴대폰	21.1	7.0	-2.7	-6.2	-13.0	-18.4	-4.8
서비스	화물운수	24.6	12.4	-2.2	-3.1	-8.0	-5.3	1.2
	여객운수	11.1	-14.1	-37.2	-37.2	-38.0	-37.3	10.8
	우편 ³⁾	34.4	25.1	6.0	4.5	-5.5	3.0	4.6
	통신 ³⁾	28.3	27.8	22.7	21.3	21.0	20.8	17.7
	소매업	20.6	11.8	0.1	0.5	-5.6	-0.1	2.9
	음식숙박업	48.6	18.6	-7.7	-6.3	-8.4	-14.1	9.2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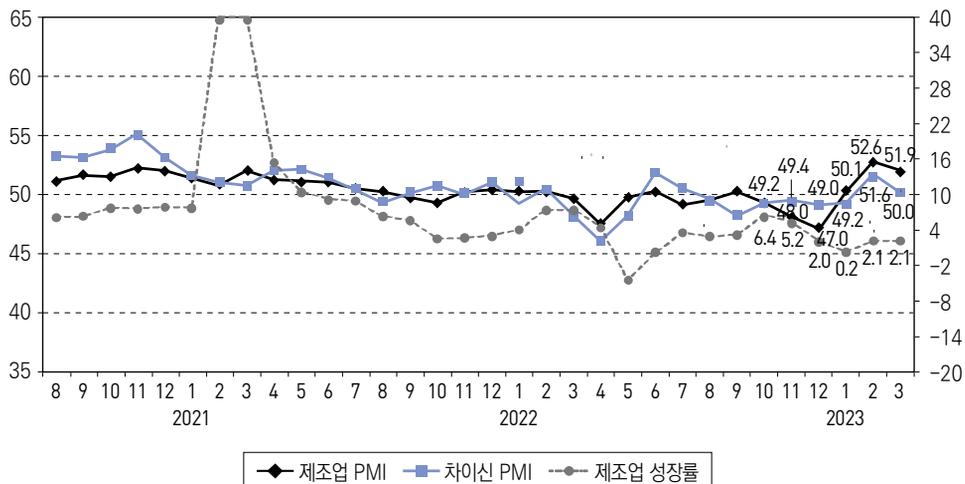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 기업은 전년동기비 2.7%, 민영기업은 2.5%, 주식제기업은 4.3% 수준
- 1~2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생산활동 정상화와 춘제(春節) 연휴 소비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일부 업종은 감소
 - 섬유업종은 방직(-11.2%)과 화학섬유(-6.0%)가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화학업종은 플라스틱원료(0.9%)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에틸렌(-1.7%)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플라스틱제품(-7.4%)은 감소세 유지
 - 철강업종은 생산활동 정상화와 수요 확대로 모든 품목이 증가세로 전환하여 생산량이 전월 대비 선철 7.3%, 조강 5.6%, 강재 3.6% 증가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9.8% 증가하며 증가세 확대
 - 기계업종은 대기오염방지설비(37.4%)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소형트랙터(26.1%)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발전설비(-1.9%)와 금속절삭기계(-11.8%)는 감소
 - 자동차는 세금감면 혜택 종료와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14.0%로 감소세 유지
 - 조선업은 생산활동 정상화 조치에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21.9%로 감소세 확대
 - 전자업종에서 세탁기(1.8%)는 증가세 유지, 에어컨(10.8%)과 냉장고(7.9%)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컬러TV(-4.7%)와 휴대폰(-4.8%)은 감소세가 축소되었으나 컴퓨터(-23.5%)와 반도체(-17.0%)는 두 자릿수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
- 방역 해제로 인해 경제활동과 이동이 자유화되고 춘제 이동과 소비 증가로 인해 운수업이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음식숙박업과 소매업도 증가세로 전환
 -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며 이동이 자유화되고 춘제 고향방문으로 여객운수(10.8%)가 두 자릿수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물류 정상화로 화물운수도 1.2%로 증가세 전환
 - 우편(4.6%)은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며 통신도 17.7%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경제활동 정상화와 춘제 소비 증가로 음식숙박업(9.2%)과 소매업(2.9%) 모두 증가세로 전환

□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와 민간치 소폭 감소

- 3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이하 PM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51.9로 소폭 하락했지만 3개월 연속 기준치(50) 이상 시현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54.6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3.6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8.3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9.7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50.8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기준치(50)를 상회했으나 전월보다 하락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53.6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한 50.3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한 50.4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3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지)는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한 50.0으로 기준치(50) 수준
 - 차이신(Caixin) PMI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었으나 대외 요인 등으로 생산 및 소비 등의 경제회복 강도가 강하지 않아 수치는 전월보다 소폭 감소하여 기준치(50) 수준을 기록
 - 생산 활동이 지난달 대폭 반등에 비해 3월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신규 주문도 상승세가 축소되었으며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주문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고용지수는 생산 여건 개선에도 소폭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고용 축소
 - 물가지수는 금속과 식품 등 일부 품목의 상승에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만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생산자 물가는 소폭 감소
 - 기존 재고 사용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가 감소하여 원자재 구매와 재고지수는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코로나 사태 진정으로 배송 시간과 물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배송시간 감소도 지속
 - 기업들은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였으며, 향후 경제성장은 내수 부양과 가계 소비 개선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여 가계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에 대한 정부 노력 기대 반영

(2) 미국

□ 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 수준

- 컴퓨터·주변기기, 통신기기 등은 전년동월비 생산 호조 지속
 - 컴퓨터·주변기기의 생산은 전년동월비 14.1% 증가하면서 지난해 지속된 생산 호조세 지속
 - 통신기기의 생산도 전년동월비 10.6%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실적 호조 지속
 - 그 외 자동차·부품, 항공우주에서도 각각 전년동월비 8.5%, 7.6% 증가
- 그러나 제지, 반도체 및 전자부품, 1차 금속 등은 생산 감소 지속
 - 제지의 생산은 10%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비 생산 부진 지속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제조업 전체	4.5	3.3	3.0	0.9	0.9	-0.8	0.9	0.0
식품	1.4	2.2	2.7	1.2	1.2	-0.4	-0.4	-1.3
제지	0.7	1.3	-2.9	-6.0	-3.1	-9.1	-9.1	-10.0
정유	10.2	-0.1	-1.1	-2.8	-1.5	-4.9	-4.9	-0.4
화학	8.8	1.2	0.9	-1.2	-0.3	-3.5	-3.5	1.6
플라스틱·고무	3.5	4.5	3.8	0.2	-1.0	-1.4	-1.4	-3.3
1차 금속	1.4	0.1	-1.5	-4.8	-5.9	-5.4	-5.4	-5.1
가공금속	5.6	3.1	3.6	1.6	1.1	0.7	0.7	-0.4
기계	10.2	7.2	5.2	4.4	5.9	0.7	0.7	0.2
컴퓨터·주변기기	20.0	14.0	15.8	11.9	12.6	10.7	10.7	14.1
통신기기	7.8	9.4	17.7	11.1	10.3	10.1	10.1	10.6
반도체·전자부품	1.7	-5.5	-1.9	-3.1	-2.6	-4.8	-4.8	-5.2
자동차·부품	-0.4	10.8	13.9	7.9	4.5	8.0	8.0	8.5
항공우주	-3.4	6.6	11.0	12.4	12.0	11.8	11.8	7.6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반도체 및 전자부품과 1차 금속은 각각 5.2%, 5.1%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생산 지속
- 그 외 플라스틱·고무(-3.3%), 식품(-1.3%), 정유(-0.4%)도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3) 일본

□ 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6% 감소

- 다수 제조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실적 부진이 지속
 - 전자부품·기기의 생산은 15.4% 감소하면서 수개월째 전년동월비 가장 실적이 부진한 업종으로 기록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제조업 전체	-0.6	-3.6	4.3	-0.1	-0.8	-2.4	-3.2	-0.6
강철·비철금속	-2.5	-5.3	-5.9	-5.4	-5.3	-8.5	-7.9	-4.4
금속제품	-3.5	-2.8	1.7	0.9	1.4	-1.4	-2.5	-0.8
생산기계	11.0	4.5	16.8	2.2	0.6	1.1	-13.4	-1.5
일반용·업무용 기계	6.1	-1.7	6.4	2.3	1.7	-5.1	2.0	-0.9
전자부품·기기	9.5	1.0	-7.7	-12.1	-12.7	-13.1	-19.2	-15.4
전기·정보통신기기	-6.5	-9.9	5.5	7.3	8.9	5.4	8.4	8.1
수송기기	-10.8	-13.1	17.1	7.1	0.7	-2.4	6.3	6.3
요업·토석제품	-3.0	-5.1	-5.6	-7.7	-7.5	-9.9	-11.2	-7.4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0.6	-3.6	-3.1	-5.0	-4.0	-5.0	-4.3	-4.0
석탄·석유제품	8.6	12.9	6.9	0.5	3.9	-3.7	-1.5	0.1
플라스틱제품	-2.2	-3.4	0.7	-3.0	-4.3	-5.7	-6.8	-2.9
펄프·종이·가공품	1.4	-1.3	-0.8	-3.4	-3.4	-2.9	-4.5	-6.0
식품·담배	-1.4	-1.7	1.1	-2.8	-2.5	-1.1	-1.2	-
기타 제조업	1.0	-1.5	-1.0	-2.4	-1.8	-3.5	-3.4	-2.9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요업·토석제품 역시 전년동월비 7.4%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내내 지속되던 마이너스 실적 지속
- 그 외에도 펄프·종이제품(-6.0%), 강철·비철금속(-4.4%), 화학제품(-4.0%) 등 다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기록이 지속되는 상황
- 다만 전기·정보통신기기, 수송기기의 생산은 증가 기록
 - 전기·정보통신기기의 생산은 전년동월비 8.1%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생산 실적에서 큰 역할을 담당
 - 수송기기 생산도 전년동월비 6.3% 증가하면서 전기·정보통신기기와 아울러 제조업 생산을 견인

(4) 유로존1)

□ 2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7% 상승

● 2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및 기계 등의 생산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2.7% 상승

- 자동차는 차체 및 트레일러(-24.8%)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39.2%)와 부품(6.0%)의 생산 확대로 18.6%의 증가율 기록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2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제조업 전체	4.0	6.2	8.5	8.3	1.4	2.1	2.7
식음료	0.5	-1.9	-1.8	-1.2	-2.6	1.1	0.6
섬유	-2.4	-8.9	-8.0	-9.6	-9.0	-7.5	-8.6
정유	3.6	-1.9	-7.7	-2.4	4.4	1.0	3.4
화학	-7.0	-16.2	-14.1	-15.2	-19.6	-15.3	-13.1
고무·플라스틱	-2.3	-4.4	-3.0	-4.1	-6.5	-4.3	-4.0
1차 금속	-4.4	-7.9	-6.9	-6.2	-11.5	-6.7	-5.4
조립금속	-0.3	-0.6	0.2	-1.6	-0.3	-0.6	-2.2
기계	4.4	4.9	4.6	5.0	5.2	4.7	3.7
통신기기	2.2	0.6	1.8	6.3	-5.7	2.7	1.2
전자부품	13.5	18.0	18.3	25.8	10.3	8.0	12.9
자동차	3.7	12.6	14.7	13.7	8.7	9.2	18.6
조선	1.5	1.5	0.5	3.2	0.8	2.4	2.7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전자부품은 부품(12.1%) 및 기판(17.7%)의 생산 확대에 의해 12.9% 기록
- 기계는 농업 및 임업용 기계(15.7%)와 특수목적용 기계(7.0%)의 생산 호조로 인해 3.7% 증가
- 반면, 화학은 기초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 살충제 및 농약(-17.0%), 화학섬유(-14.4%)의 생산 감소로 -13.1% 기록
- 1차 금속의 경우 철강 가공(-12.2%)과 1차 철강제조업(-11.1%)의 부진으로 -5.4%를 기록하였고, 섬유는 섬유(-10.3%) 및 방직(-10.1%) 생산이 부진하며 -8.6% 기록

II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2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증가세

- 2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1개월 만에 감소(전월비 -3.2%)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 등이 증가(0.7%)한 데 힘입어 전월비 0.3% 증가
 - 광공업 생산은 1차 금속(5.1%)의 증가 영향에도 자동차(-4.8%)와 반도체(-17.1%)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3.2%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5.4%)와 숙박·음식(8.0%)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0.7% 증가
 - 소매판매는 승용차판매(전년동월비 10.8%)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4.6%나 증가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3.5%)와 비내구재(6.4%) 판매가 역시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4개월 만에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5.3%)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0%)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류에서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소폭 상승(0.2%) 전환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6.6%)과 토목(3.9%)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6.0%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한 반면에, 건설기성액, 소매 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0.6% 증가)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 금리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했으나, 건설수주액, 코스피 등이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보합세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GDP성장률	4.1*	2.6*	2.9* (0.7*)	3.1* (0.3*)	1.3*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3.9* (2.9*)	5.7* (1.7*)	3.4* (-0.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6.6* (0.5*)	4.1* (7.9*)	7.0*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3.7* (0.2*)	-2.1* (-0.2*)	-3.1* (0.8*)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5.6 (0.8)	5.5 (0.4)	1.9 (-1.5)	1.3 (-0.5)	0.7 (0.1)	-1.3* (0.1*)	-2.9* (0.3*)
광공업생산지수	8.2	1.4	5.6 (-2.3)	1.4 (-2.4)	-1.4 (-6.4)	-5.5 (-0.4)	-10.5 (-3.1)	-13.0* (2.4*)	-8.1* (-3.2*)
제조업생산지수	8.4	1.4	5.6 (-2.2)	1.4 (-2.6)	-6.7 (-6.7)	-5.7 (-0.4)	-11.1 (-3.6)	-13.6* (2.7*)	-8.2* (-3.1*)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8 (2.9)	8.5 (1.7)	5.8 (0.1)	3.9 (-0.8)	6.6 (1.6)	4.8* (-0.5*)	7.2* (0.7*)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2 (-1.0)	-0.9 (0.3)	-2.3 (-0.9)	-2.3 (-2.3)	-3.1 (-0.2)	-0.9* (-1.1*)	-0.8* (5.3*)
설비투자지수	9.6	3.3	-2.4 (-0.4)	7.5 (8.6)	9.6 (-0.2)	10.7 (0.3)	3.2 (-6.1)	-4.9* (-2.5*)	5.7* (0.2*)
건설기성액	-6.7	2.7	2.0 (-0.1)	3.5 (0.8)	6.4 (4.6)	11.8 (-0.7)	0.4 (-0.9)	3.7* (4.9*)	22.4* (6.0*)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3.8 99.0	108.3* 100.5*	107.8 100.4	109.0 100.8	108.9* 100.1*	108.9 100.1	108.4* 99.4*	108.3* 99.0*	108.9* 99.4*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6.2 101.3	108.7* 100.0*	108.5 100.2	109.1 99.9	109.5* 99.5*	109.6 99.5	109.4* 99.1*	109.4* 98.8*	109.4* 98.5*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2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1% 증가

- 2월 국내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인 1.1%를 기록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0.6%)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3.8% → -3.5%)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2.3% → 1.8%)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1.9% → -0.2%)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폭 역시 축소(2.8% → 1.8%)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 산업	27,273	28,089	28,347	28,425	28,216	28,418	28,421	27,808	27,363	27,714
전년동기비	1.4	3.0	3.2	2.8	2.2	2.4	2.3	1.9	1.5	1.1
농림·어업	0.9	4.6	6.0	5.7	2.1	2.9	3.9	-1.1	-3.8	-3.5
제조업	-0.2	3.1	3.0	5.0	3.0	4.7	2.3	1.9	-0.8	-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3.0	2.2	2.1	2.0	2.2	2.1	2.3	1.8
건설업	3.7	1.6	2.7	-0.3	0.2	0.6	0.5	-0.6	-1.9	-0.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0.4	1.0	2.4	1.7	2.8	2.6	2.8	1.8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4.7	3.9	1.0	1.7	0.5	0.7	1.3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4.4	2.8	2.6	2.5	2.6	2.7	3.3	2.7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9	2.8	2.9	2.8	2.8	3.1	2.9	2.6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1.5% → 0.1%)에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2.3% → 3.1%)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9.3% → 7.3%)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9% → 1.5%)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하락(3.3% → 2.7%)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하면서 2.6% 기록

03 물가

□ 3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4.2% 상승

- 3월 소비자물가는 교통(-0.4%)과 주택·수도·전기·연료(-0.3%) 부문을 제외하고 음식·숙박(0.8%), 식료품·비주류음료(0.4%), 교육(0.6%)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4.2% 상승)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2.5	5.1	5.9 (1.1)	5.3 (0.4)	5.7 (0.3)	5.0 (-0.1)	5.0 (0.2)	4.7 (1.1)	5.2 (0.8)	4.8 (0.3)	4.2 (0.2)
근원물가	1.8	4.1	4.5 (0.9)	4.8 (1.2)	4.8 (0.6)	4.8 (0.3)	4.8 (0.4)	4.9 (1.3)	5.0 (0.7)	4.8 (0.3)	4.8 (0.2)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3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4월 초순(4월 5~10일)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 3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더욱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2월 +5조 2,000억 원 → 3월 +5조 9,000억 원, 대기업 +1,000억 원, 중소기업 +5조 8,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폭이 축소된 모습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과 법인세 납부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
 - CP·단기사채는 계절요인과 일부 기업들의 차환 등으로 순상환 기초가 유지되는 모습이고, 회사채는 계절요인과 금리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된 모습,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한 모습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3월 말 잔액
	1~3월	3월	1~3월	3월	1~3월	1월	2월	3월	
은행 원화대출	23.6	4.6	28.2	8.6	19.0	7.9	5.2	5.9	1,189.3
(대기업)	1.3	-2.7	5.7	0.9	7.6	6.6	0.9	0.1	224.5
(중소기업)	22.3	7.3	22.5	7.7	11.3	1.3	4.3	5.8	964.8
(개인사업자)	10.1	3.6	7.7	2.9	1.4	-0.9	1.4	1.0	444.2
회사채 순발행	7.8	1.9	2.2	-0.9	9.7	3.2	4.3	2.2	..
CP·단기사채 순발행	5.9	0.3	10.8	0.6	4.9	6.9	-1.7	-0.3	61.5
주식발행	8.9	6.6	13.8	0.8	2.1	1.5	0.2	0.3	..
은행 가계대출	20.8	6.5	-1.7	-1.0	-8.1	-4.7	-2.8	-0.7	1,049.9
주택담보대출	17.1	5.7	6.0	2.1	2.0	0.0	-0.3	2.3	800.8
기타 대출	3.6	0.8	-7.7	-3.1	-10.0	-4.6	-2.4	-2.9	247.8

자료: 한국은행.

- 3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기타 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 전환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2월 -2조 8,000억 원 → 3월 -7,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에,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와 특례보증자리론 실행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된 모습이며, 기타 대출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 중심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3월 중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은행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및 통화긴축 강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영향 등으로 하락(4월 3일 3.342% → 4월 10일 3.192%, -0.15%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은행위기 우려 약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으로 하락한 이후, 4월 들어 유가 급등세와 무역적자 지속,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 글로벌 달러화 강제 재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상승(4월 3일 1,316.5원 → 4월 10일 1,319.7원, +3.2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10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33	3.80	3.27	3.19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34	4.48	4.07	4.00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63	3.59	3.59	3.51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57	4.06	4.01	4.01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231.9	1,322.6	1,301.9	1,319.7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42.2	967.4	981.4	999.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증가 기준.

05 수출입

□ 3월 수출 13.6% 감소, 수입 6.4% 감소, 무역적자 46억 달러

● 지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6% 감소한 551억 달러, 수입도 6.4% 감소한 5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46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지난 2022년 3월에 역대 최고 실적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자동차를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13.6% 감소(6개월 연속 감소세)하고, 지역별로는 대미국과 인도, 중동, CIS 등을 제외한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

- 수입은 유가·LNG가 하락 등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데다, 반도체와 철강제품 등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2개월 만에 다시 감소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85.9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3.2% 하락한 반면에, 도입물량이 8.1%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6.1% 감소한 약 79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수출	6,444 (25.7)	6,836 (6.1)	1,740 (5.8)	1,590 (-10.0)	518 (-14.2)	548 (-9.7)	1,516 (-12.6)	464 (-16.4)	501 (-7.5)	551 (-13.6)
수입	6,151 (31.5)	7,314 (18.9)	1,923 (22.6)	1,776 (3.1)	588 (2.6)	596 (-2.5)	1,740 (-2.2)	589 (-2.8)	554 (3.5)	597 (-6.4)
무역수지	293	-478	-183	-186	-71	-48	-224	-125	-53	-4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3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2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8.2%, 전월비 -3.1%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26.2%), 기타 운송장비(34.0%), 통신·방송장비(43.9%), 기계장비(8.6%)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41.8%), 전자부품(-36.3%), 화학제품(-17.3%), 1차 금속(-1.9%)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8.2%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감소폭(-36.0%)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중공업(-9.5%)에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경공업(0.4%)에서는 소폭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타 운송장비(3.8%), 1차 금속(5.1%), 기계장비(3.1%), 화학제품(3.3%), 섬유제품(4.9%)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7.1%), 전자부품(-7.4%), 자동차(-4.8%)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2개월 만에 감소(-3.1%)
- 제조업 생산능력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 업종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5% 감소, 전월비 기준으로는 0.2% 감소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0.1%로 전월과 달리 0.7%포인트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전월과 달리 약간 축소(9.8% → 9.2%, 계절조정치 전년동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113.2	108.4	107.1	108.7	96.0	94.0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2	1.4	5.6	1.4	-6.4	-10.5	-13.0	-8.1	-3.2
제조업(원지수)	9,569.5	108.4	109.9	114.1	108.8	107.1	107.8	94.6	93.4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4	1.4	5.6	1.4	-6.7	-11.1	-13.6	-8.2	-3.1
섬유	113.4	2.0	-3.5	-1.3	-3.8	-10.1	-14.9	-15.2	0.8	4.9
화학	854.2	8.6	-9.9	-4.8	-16.9	-20.1	-25.1	-24.1	-17.3	3.3
철강	496.6	5.2	-8.5	-0.6	-11.9	-23.3	-19.0	-17.9	-2.1	7.7
반도체	2,023.8	26.8	7.6	27.4	1.3	-19.8	-25.1	-33.9	-41.8	-17.1
컴퓨터·주변장치	32.4	27.5	11.0	13.2	14.2	10.8	17.7	-21.7	-1.2	36.9
통신·방송장비	171.0	23.5	-5.1	-11.0	4.3	-1.1	-35.9	35.2	43.9	-16.4
의료·정밀·광학	217.2	17.8	6.6	5.0	7.8	5.9	7.2	-6.8	5.4	4.8
기계장비	737.3	12.1	1.1	-4.8	7.2	5.4	-0.7	-8.4	8.6	3.1
자동차	987.5	6.3	9.1	5.0	18.8	17.5	11.4	10.7	26.2	-4.8
조선	66.0	-7.2	20.7	26.7	21.2	23.4	23.8	11.0	33.0	7.9
중공업	-	9.9	1.5	6.0	1.2	-7.3	-11.9	-14.3	-9.5	-3.7
경공업	-	1.3	0.4	2.8	2.5	-4.0	-7.3	-9.6	0.4	0.4
제조업ICT	-	19.3	2.2	16.9	-2.1	-19.7	-27.2	-29.8	-36.0	-14.4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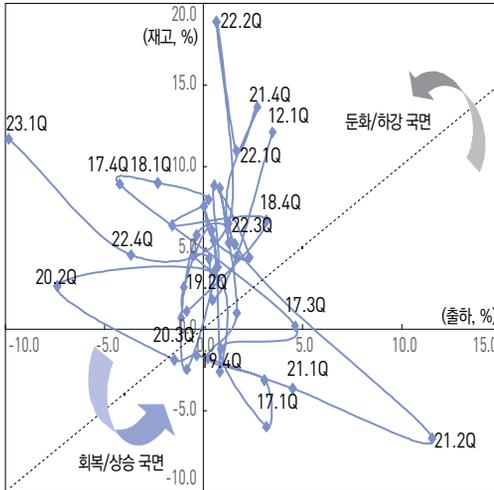
월비)되고, 출하 감소폭도 축소(-9.0% → -6.5%)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4%로 전월보다 2.4%포인트 하락

□ 자동차 수출만 유일하게 증가, 13대 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 동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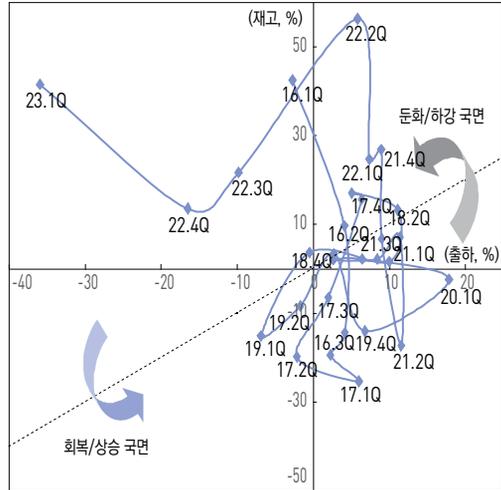
-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에서 역기저효과 본격화, 수요 부진 역시 지속되면서 수출 감소세는 지속
- 다만, 에너지 수입 감소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한 모습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1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1Q는 2023년 1~2월 평균

제조업 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1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1Q는 2023년 1~2월 평균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자동차	24.2	16.4	31.2	29.0	30.5	28.1	44.1	21.8	47.1	64.2
자동차부품	22.2	2.4	7.7	-1.1	0.8	-6.3	-3.5	-16.2	13.3	-5.3
선박류	16.4	-20.9	5.9	-22.6	-68.2	76.0	2.6	84.7	-10.5	-24.3
일반기계	4.6	2.0	0.2	-3.1	-1.9	-3.9	-2.0	-15.9	12.8	-0.8
철강	36.9	5.7	-5.2	-17.6	-10.6	-20.9	-15.7	-25.8	-9.8	-10.7
석유화학	54.8	-1.4	-9.8	-25.1	-26.2	-23.6	-22.6	-24.1	-18.4	-25.1
석유제품	57.7	64.9	78.2	18.0	24.4	20.8	0.9	14.6	12.0	-16.6
섬유	14.0	-4.0	-5.8	-18.7	-20.2	-17.0	-15.1	-27.7	-4.2	-12.0
가전	24.0	-7.4	-15.0	-24.0	-25.1	-24.8	-8.4	-20.0	4.2	-8.3
무선통신기기	45.9	-10.4	-14.9	-19.0	-18.9	-33.3	-12.7	17.7	-1.8	-42.3
컴퓨터	24.7	-4.7	-26.8	-41.0	-50.1	-34.7	-61.9	-63.8	-64.9	-57.6
반도체	29.0	1.0	-3.9	-25.8	-29.9	-29.1	-40.0	-44.5	-42.5	-34.5
디스플레이	18.9	-1.1	-10.0	-20.2	-15.6	-35.9	-39.5	-36.0	-40.9	-41.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3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완성차 수출 규모가 월 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기준 최고 실적 기록

- 3월 내수는 지난해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한 기저효과와 적체된 대기 수요로 전년동월비 20.6% 증가
 - 국산차 판매는 신차 효과와 누적된 대기 수요로 26.1% 증가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친환경 자동차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 판매가 축소되며 4.3% 감소
- 3월 수출은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39.6%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기록
 - 완성차는 95.7% 증가한 전기차 수출과 함께 미국과 EU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64.2% 증가
 - 자동차부품은 인도 지역의 현지 생산 확대에 의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로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5.0	18.8	17.5	11.4	10.7	26.2	-
	생산(전기비)	-	-	4.0	8.3	-1.2	-5.6	9.5	-4.8	-
	출하	5.3	8.0	2.9	19.1	15.9	11.3	8.8	26.0	-
	재고	-6.4	23.7	9.2	3.2	23.7	23.7	33.2	33.4	-
	가동률	1.8	5.6	3.6	16.0	11.3	5.6	5.9	19.5	-
	내수판매동향	-9.0	-2.2	-8.5	5.6	9.5	4.6	4.5	19.1	20.6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4.3	23.3	19.3	16.6	9.1	36.3	39.6
	수입	10.2	8.0	-9.2	12.8	28.7	6.3	40.1	10.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이 감소하며 5.3% 감소

- 2월 생산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증가 속 부품 공급 문제로 전월비 감소
 -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한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로 생산, 출하, 재고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가동률도 19.5% 상승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대형승용차와 미니밴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전월비 생산은 4.8% 감소

(3) 조선

□ 생산과 수주 모두 증가하며 생산지표의 회복 지속

- 경기불황으로 세계 선박수주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월 수주는 전년동월비 62.6% 증가한 168만 CGT 기록
 -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에 강점을 보유하여 H-Line 해운의 LNG운반선과 CMA CGM, HMM의 메탄올 연료추진선을 대량 수주하였기 때문
 - 세계 선박수주량 감소에도 풍부한 수주잔량을 보유한 우량조선사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
 - * 벌크선 운임지수(BDI): (3월 1주) 1,076 → (4월 1주) 1492.5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3월 1주) 931.1 → (4월 1주) 956.9
 - * 누적 수주량: (2022년 3월) 522만 CGT → (2023년 3월) 312만 CGT
 -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3월 1주) 164.3 → (4월 1주) 165.6
- 3월 수출은 고가의 러시아 LNG-FSU가 인도되었지만,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 인도되며 전년동월비 24.3% 감소
 - 전년동월 VLCC를 포함하여 고가의 대형선박이 다수 인도되어 기저효과로 작용
- 2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22.2% 증가하였는데, 생산지표 개선에 따른 기자재 수입 증가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대규모로 수입된 선박블록의 영향으로 추정
 - 선박은 전월비 16.5%, 선박용 엔진 및 부품은 전월비 53.8%, 선박용 부품은 35.5% 증가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7	26.7	21.2	23.4	23.8	11.0	33.0	-
	생산(전기비)	-	-	8.6	-0.2	8.1	-4.6	-2.0	7.9	-
	출하	-8.1	14.0	23.0	11.4	9.6	8.6	-6.3	12.3	-
	가동률	-0.7	23.1	30.1	21.1	25.4	25.4	9.7	28.0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6.7	5.9	-22.6	76.0	86.3	-10.5	-24.3
	수입	6.1	-13.2	-1.2	-32.7	-2.4	-43.3	-69.3	22.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4) 일반기계

□ 중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심화

- 2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 모두 반등하여 전년동월비 8.6%, 전월비 1.7% 증가

-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12.8%)하고, 내수판매 또한 증가세(7.0%)로 돌아서면서 생산은 전년동월비, 전월비 모두 증가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2년 12월) 4.4 → (2023년 1월) -9.7 → (2월) 7.0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2년 12월) 9.3 → (2023년 1월) -8.0 → (2월) 3.4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2년 12월) 13.3 → (2023년 1월) -34.2 → (2월) 4.2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가가 더 크게 늘어 139.7%를 기록하며 상승세 지속

* 재고율(%): (2022년 12월) 128.8 → (2023년 1월) 136.7 → (2월) 139.7

- 가동률은 내수와 수출 동반 호조로 전년동월비 17.7% 상승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4.8	7.2	5.4	-0.7	-8.4	8.6	-
	생산(전기비)	-	-	-0.2	3.6	-1.6	-5.9	0.2	1.7	-
	출하	11.6	0.3	-6.7	7.1	4.9	1.0	-8.4	6.5	-
	재고	18.3	20.1	14.3	16.0	20.1	20.1	14.6	16.1	-
	가동률	7.3	6.2	2.0	11.0	9.7	6.1	-0.5	17.7	-
교역 동향	수출	4.6	2.0	0.3	0.2	-3.1	-3.9	-15.9	12.8	-0.8
	수입	9.6	0.7	-1.4	4.2	-3.3	-7.0	1.3	3.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 3월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과 전년동월 실적 호조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8% 소폭 감소
 - 대중국 수출은 2022년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기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폭 하락
 - * 일반기계 대중국 수출점유율(%): (2021년) 24.7 → (2022년) 17.0 → (2023년 3월) 13.7
 - 중국을 제외한 대미, 대중동 수출은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주요 건설프로젝트 추진으로 증가세를 유지
 - * 2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8.4, 0.5%), 중국(6.6, -26.6%), 중동(1.6, 3.2%)
- 2월 수입은 24억 1,7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3.1% 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249.4%), 원동기 및 펌프(29.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28.4%)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식품가공포장기계(-58.7%), 제지인쇄기계(-17.1%), 농기계(-15.4%), 금속공작기계(-12.8%) 등은 크게 감소

(5) 철강

□ 생산 회복세, 글로벌 철강 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 감소 지속

- 2월 철강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 및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1% 감소, 전월비 생산은 회복세 지속
 - 물량 기준으로는 전년도의 물량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 및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기회복, 튀르키예 지진에 따른 튀르키예향 수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비 7.4% 증가하며 회복세 시현
 - 품목별로는 열연강판, 철근 및 아연도강판의 생산물량이 증가한 반면 H형강, 중후판 생산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7.4%), 봉형강류(5.1%), H형강(-8.8%), 철근(15.3%), 선재(-2.2%), 판재류(6.8%), 열연강판(40.2%), 중후판(-10.7%), 용융아연도강판(4.4%), STS핫코일(-52.3%), STS냉연강판(-25.7%), 전기강판(-22.1%), 강관(13.5%)
- 3월 수출은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전년도의 높은 수출 단가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 3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톤당 1,234달러로 2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중동 내 대형 인프라 및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재 수요 확대로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증가한 반면 미국, 아세안, 중남미 등 주요 수출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 지속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3월) 1,457 → (2023년 3월) 1,234(-15.1%)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미국(-19.3%), 아세안(-15.1%), EU(-4.4%), 중남미(-19.9%), 중동(7.5%)
- 2월 수입은 물량기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높은 수입단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4% 감소
 - 2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988달러로 지난해 2월(1,133달러/톤) 대비 12.7% 하락, 수입 감소를 견인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5	-0.6	-11.9	-23.2	-19.0	-17.9	-2.1	-
	생산(전기비)	-	-	-0.9	-9.7	-15.4	5.8	9.4	7.7	-
	출하	4.5	-7.0	-6.2	-8.5	-13.5	-11.5	-16.9	-2.0	-
	재고	14.4	-9.8	34.6	9.3	-9.6	-9.8	-10.2	-7.3	-
	가동률	5.5	-8.7	-0.8	-12.3	-23.9	-19.5	-18.5	-2.6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17.2	-5.2	-17.6	-20.9	-25.8	-9.8	-10.7
	수입	50.1	2.0	21.3	-20.8	-17.8	-19.4	-11.9	-0.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 중국산 철강재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H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등의 대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 물량기준 수입은 전년동월비 14.1% 증가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27.5%), 일본(-5.7%), 미국(4.3%), 대만(-32.9%), 베트남(-20.0%)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열연강판(58.6%), 중후판(31.1%), 선재(61.7%), 아연도강판(76.1%), 형강(129.8%), 철근(-43.4%)

(6) 정유

□ 수출은 단가 하락으로 25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전환

- 2월 생산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0.5% 감소
 - 내수는 항공유를 제외한 운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3.1% 감소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아스팔트(59.3%), 항공유(23.1%), 나프타(1.4%), 휘발유(-0.9%), 병커C유(-1.2%), 경유(-4.6%), 윤활유(-11.5%), LPG(-11.9%)

- 수출물량은 항공유,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 등 운송용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12.6%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80.7%), 윤활유(8.8%), 나프타(3.8%), 휘발유(3.2%), 경유(2.7%), 아스팔트(-5.0%), LPG(-21.9%), 병커C유(-48.1%)
- 3월 수출액은 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16.6% 감소
 - 수출액은 항공유 중심의 수출물량 확대 및 정제마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기저효과에 따른 상대적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비 3.4% 증가했지만 수출단가는 19.4%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3월) 110.9 → (2023년 3월) 78.5(-29.2%)
 - *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3월) 130.3 → (2023년 3월) 105.0(-19.4%)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3월) 55.2 → (2023년 3월) 46.0(16.6%)
 - 지역별로는 주요 수출처인 아시아로의 수출 감소 추세가 지속된 반면 미국, 유럽, 중동 및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확대
 - * 지역별 수출 증가율(%): 중남미(3,216), CIS(464.7), EU(84.3), 미국(13.6), 아세안(-49.4), 일본(-46.8)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8	0.9	4.5	-2.1	-6.2	-0.5	-0.5	-
	생산(전기비)	-	-	0.8	2.4	-3.1	-5.4	2.2	1.3	-
	출하	-0.7	2.3	-2.0	8.0	-1.1	-3.4	2.3	3.4	-
	재고	12.6	-2.5	16.8	3.5	-2.5	-2.5	2.6	3.9	-
	가동률	1.8	1.9	1.1	4.6	-2.0	-6.1	0.3	-0.3	-
	내수판매동향	7.0	1.1	-1.6	0.2	-2.0	-2.2	-8.0	-3.1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90.9	78.2	18.0	20.8	14.6	12.0	-16.6
	수입	86.0	10.9	31.8	-4.7	-20.1	-25.8	-12.4	-10.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7) 석유화학

□ 제품 스프레드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대상국향 수출액 및 국내 생산 감소세 지속

- 2월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17.3%, 10.6% 감소했고 가동률 하락(-16.5%) 영향에도 재고 증가
 - 2월 말 기준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73달러로 전년 11월 대비 소폭 개선
 - * 스프레드 개선 영향으로 YNCC 등 생산시설 가동률이 상승하며 공급 증가
 - 중국 양회 이후 중국 내 전방수요 증가 기대가 크게 실현되지 못하며, 대부분의 합성수지, 합섬원료 제품군 가격 하락세 지속
- 3월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중국향 수출량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5.1% 감소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29.2% 및 18.9%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3월) 110.9 → (2023년 3월) 78.5(-29.2%)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4.8	-16.9	-20.1	-25.1	-24.1	-17.3	-
	생산(전기비)	-	-	-7.0	-12.8	-4.8	-4.0	3.1	3.3	-
	출하	6.1	-9.5	-7.0	-13.8	-16.7	-18.3	-16.2	-10.6	-
	재고	21.9	-3.9	6.6	-5.0	-3.9	-3.9	-4.7	-3.3	-
	가동률	8.2	-10.1	-6.9	-15.9	-18.9	-25.6	-22.9	-16.5	-
교역 동향	수출	54.8	-1.4	7.0	-9.7	-25.1	-23.6	-24.1	-18.4	-25.1
	수입	36.1	-2.3	5.4	-0.9	-21.4	-29.7	-22.3	-15.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3월) 1,585 → (2023년 3월e) 1,246(-18.9%)
- 중국 시장 내 중간원료(PX), 합섬원료(TPA) 자급률 상승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수입수요 감소
- 동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과잉공급 상황 지속과 제품 스프레드 위축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입액 감소세 견인
- 주요 수출대상국 내 전방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
 - * 3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기비): 중국(10.7, -37.9%), 아세안(4.3, -35.1%), EU(3.9, -22.3%)

(8) 섬유

□ 수출 부진 불구 내수 개선에 따른 생산 증가

- 2월 생산은 전년동월 실적 부진(-11.9%)에 따른 기저효과 및 근무일 증가, 내수 개선 효과로 증가세 전환
 - 2월 의류 소매판매액지수는 2월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 내수 증가는 의류 및 의류용 소재의 국내 생산 증가를 견인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2022년 12월) 1.8% → (2023년 1월) 2.8% → (2월) 12.8%
 - 지난 1월 마스크 해제 이후 패션제품 소비 증대로 2월 온라인 쇼핑몰의 의류 거래액이 전년동월비 11.5% 증가하였고 오프라인 매장의 의류판매도 빠르게 증가
 - 품목별로는 수출비중이 높은 직물, 편물 화학섬유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원사, 염색가공, 봉제의류 등 생산이 증가
 - * 봉제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2월) 25.1% → (2023년 1월) 121.1% → (2월) 25.9%
 - * 원사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2월) -5.0% → (2023년 1월) -3.1% → (2월) 6.5%
 - * 직물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2월) -33.8% → (2023년 1월) -32.8% → (2월) -36.3%
 - * 편물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2월) -17.3% → (2023년 1월) -33.3% → (2월) -38.9%
 -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2022년 12월) -24.6% → (2023년 1월) -13.4% → (2월) -5.6%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1	-0.8	-3.2	3.3	3.1	2.8	-1.9	10.7	-
	생산(전기비)	-	-	-0.9	-1.8	-10.5	-11.6	-13.0	-3.5	-
	출하	-18.2	-2.3	-4.1	0.6	4.1	0.7	-1.1	11.7	-
	재고	5.8	-4.0	-0.2	-9.6	-12.6	1.4	-22.8	-8.3	-
	가동률	7.7	5.3	8.3	6.3	-4.4	-8.0	-9.6	3.6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1.9	-5.8	-18.7	-17.0	-27.7	-3.1	-12.0
	수입	12.9	8.8	10.0	17.0	-5.3	-3.2	-3.1	-3.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 3월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및 경기 부진 등 악재로 의류 수요 감소 및 해외 생산 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이 동반 하락하며 감소세 확대
 - 미국, EU 등의 의류 수요 약화로 글로벌 브랜드의 소재 소싱 오더가 감소하며 대아시아 수출이 큰 폭 감소
 - 대미 수출은 고물가, 고금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불안 요인 증대로 수요 부진으로 감소 지속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2년 3월) 11.5(7.4%) → (2023년 3월) 10.2 (-12.0%)
 - * 3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아세안) 2.6(-19.9%), (미국) 1.0(-24.3%), (EU) 0.8(-10.4%)

(9) 가전

□ 국내외 수요 둔화로 생산 감소 지속, 수출은 감소로 전환

- 2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20.8% 감소, 전월비로는 5.2% 증가

- 내수 감소 심화로 2월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생산은 큰 폭의 감소를 지속
 - * 2월 가전제품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는 전년동월비 17.2% 감소
- 조명기기는 판매 호조로 생산이 증가한 반면, 생활가전과 영상음향기기는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가전 생산도 감소
- 재고는 생활가전 판매 감소에 따른 생산 위축으로 전년동월비 16.3% 감소
- 가동률은 판매 부진 우려로 하락세를 지속
- 3월 수출은 수요 둔화와 전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8.3% 감소
 -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수출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수출 규모는 2021년 수준을 보이면서 기저효과를 고려한 수출 감소폭은 작은 편
 - * 3월 수출액(백만 달러): (2020년) 613 → (2021년) 723 → (2022년) 776 → (2023년) 712
 - 품목별로는 TV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과 조명기기는 비교적 실적이 양호
 - * 2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냉장고 7.2%, 기타 조명기기 11.5%, 컬러TV -7.6%, 에어컨 31.1%
- 2월 수입은 내수 감소 심화로 전년동월비 18.3% 감소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5.3	-0.7	-13.8	-13.3	-12.3	-25.6	-20.8	-
	생산(전기비)	-	-	-7.7	-12.8	-7.1	-2.7	2.7	5.2	-
	출하	-10.3	-0.6	4.1	-7.4	-8.4	-21.5	-15.9	-5.5	-
	재고	1.2	-5.3	-8.9	-4.3	-11.0	-5.3	-3.3	-16.3	-
	가동률	1.4	-9.6	-4.1	-16.2	-20.8	-19.2	-23.9	-16.0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0.0	-15.0	-24.0	-24.8	-20.0	4.2	-8.3
	수입	19.1	-5.0	-7.1	-1.7	-14.5	-15.1	-15.8	-18.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내수 위축으로 컬러TV, 기타 조명기기,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했고, 국내기업 해외공장의 역수입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10) 무선통신기기

□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 지연, 3월 수출은 42.3% 큰 폭 감소

- 2022년 11개월 연속 감소했던 수출은 2023년 1월 17.7% 증가로 전환했지만 재차 감소
 - 이는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가시적 소비심리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 기인
 -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춘제 효과에 힘입어 1월 전월비 40% 증가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분기 출하량 증가가 기대되었으나, 유럽과 북미의 실리콘밸리은행 및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이후 경기 둔화 전망이 우세
 - * 지역별로는 중국향 수출이 전년동월비 43.2% 감소, 대미국 수출이 40.8% 대폭 감소하고, 아세안(ASEAN) 지역 수출 역시 17.2% 감소
 - * 트렌드포스(2023. 3)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8.9% 감소할 전망이나, 국내기업의 점유율은 2022년 4분기 19.4%에서 2023년 1분기 23.6%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43.9% 큰 폭 증가하고, 출하도 20.6% 증가하면서 가동률 또한 32.3% 상승
 - 2월에 출시된 국내 기업의 플래그십 신규 스마트폰은 사전판매량에서 국내외 신기록을 갱신하며 추후 판매량 호조가 전망, 3월에는 글로벌 판매량이 가장 많은 고사양 보급형 신제품이 출시
 - * 가트너(2022. 12)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평균판매가(ASP)는 주요 외국 경쟁기업의 절반 수준인 450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나, 신규 플래그십과 폴더블폰 판매 증가로 격차가 감소할 전망

-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4)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폴더블폰 브랜드는 선호도 49% 및 재구매의사 92%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2023년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비 70% 상승한 2,270만 대 선으로 예상
- 국내외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은 노임 상승 및 생산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인도로 그 비중이 빠르게 이동 중
 -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3)에 따르면 2022년 인도에서 생산한(Made in India) 스마트폰 출하량은 3%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34% 증가
 - * 그간 중국 내 생산에 크게 의존한 주요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 생산 출하량이 전년비 수량 기준으로 65%, 금액 기준으로는 162% 증가
 - * 2022년 'Made in India' 스마트폰 출하량 1위는 중국 오포(OPPO)로 총수출물량의 21.8%를 생산하였으며, 국내 주요 기업이 21.3%를 생산
- 2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2.7% 및 전월비 0.3% 증가하여 국내 개인 회선 수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진입
 - 반면, 가입자 기반 단말과 사물지능통신(IoT)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각각 11.5%, 26.1% 증가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을 견인 중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11.0	4.3	-1.1	-35.9	35.2	43.9	-
	생산(전기비)	-	-	-2.9	9.9	-2.4	-39.5	110.5	-16.4	-
	출하	25.0	-2.1	-3.8	6.7	3.1	2.1	41.0	20.6	-
	재고	0.1	5.8	-0.6	-0.4	5.8	5.8	24.6	10.6	-
	가동률	28.7	-6.1	2.2	0.9	-15.5	-52.7	27.8	32.3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3.7	-14.9	-19.0	-33.3	17.7	-1.8	-42.3
	수입	17.2	-7.2	5.9	0.1	-20.2	-39.9	41.6	-4.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 특히,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45.8% 큰 폭 증가했으며, 전월비로는 6.7% 증가
- * 차량관제 및 원격관제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각각 28.4%, 26.1% 증가
- * 무선결제기기 가입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17.5% 증가
- 2월 수입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4% 감소
 -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입은 전년동월비 47.6% 증가한 반면, 휴대폰 수입은 40.2% 감소
 - * 스마트폰 부품 수입은 전년동월비 57.8% 증가, 스마트폰 수입은 40.1% 감소한 가운데 무선중계기 수입 역시 6.1%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 경기 부진 현상 완화 조짐

- 2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41.8%로 매우 악화되었고 출하 역시 -41.6%로 대폭 감소
 - 전월비 생산도 -17.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반도체 수요 감소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재고 증가율도 33.5%로 대폭 확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27.4	1.3	-19.8	-25.1	-33.9	-41.8	-
	생산(전기비)	-	-	-4.0	-10.0	-15.8	2.2	-5.6	-17.1	-
	출하	21.5	0.5	13.7	-9.2	-17.4	-24.8	-44.0	-41.6	-
	재고	27.1	15.9	67.0	24.6	15.9	15.9	39.5	33.5	-
	가동률	6.0	-3.4	12.8	-12.0	-28.1	-32.3	-40.4	-46.2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13.7	-3.9	-25.8	-29.1	-44.5	-42.5	-34.5
	수입	22.1	21.8	29.8	23.6	7.7	-10.0	-10.4	-10.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 가동률은 -46.2%로 최근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또한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제조 공장에서 생산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
 - *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4월 7일(금)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국내 생산이 더욱 축소 예정
- 3월 수출액은 85억 9,8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34.5% 감소하였고 장기간의 증가세가 꺾인 이후 8개월 연속 감소
 - 수출은 2020년 7월 이후 전년동월비 2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
 - * 지난 2022년 3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로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이 85억 달러를 넘어 전월 대비 44.2% 성장하여 경기 부진 현상 완화의 신호로 해석 가능
 - * 다만 수요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호경기로 전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수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3개월 연속 감소 중

(12) 디스플레이

□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출 대폭 감소

- 2월 생산은 스마트폰, TV 등 주요 수요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패널 수요 둔화로 감소
 - 수요 둔화로 인하여 생산은 전년동월비 36.3% 감소하였으며, 전월비로도 7.4% 감소
 - 출하량과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는 전반적인 생산 둔화 추세가 지속
 -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 발매 시기까지 생산 둔화가 지속될 전망
- 3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제품 판매 감소로 수출은 41.6% 감소하였으며, 10개월 연속 감소세
 - LCD 수출은 생산 설비 폐쇄 및 패널 평균 가격 하락으로 50.7% 감소하였으며, 6개월 연속 감소 중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5.8	-8.2	-25.7	-33.1	-33.9	-32.8	-36.3	-
	생산(전기비)	-	-	-16.2	-20.6	-7.8	-9.0	-3.1	-7.4	-
	출하	-7.7	-18.9	-4.6	-32.8	-40.5	-27.5	-33.4	-38.0	-
	재고	16.2	-35.7	14.0	-10.0	-35.7	-25.3	-19.6	-18.9	-
	가동률	-7.3	-6.5	-8.7	-6.4	-8.2	-10.3	-14.5	-21.0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30.5	30.5	-19.9	-35.9	-36.0	-40.9	-41.6
	수입	-12.8	30.9	79.8	79.8	31.2	-3.4	-22.0	-25.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월 및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주요 수요제품인 스마트폰 수요의 부진으로 OLED 수출은 37.8% 감소하여, 10억 달러 이하 수출이 3개월 지속

* OLED 출하량(천 대): 노트북: (2022년 1분기) 1,275 → (2023년 1분기 추정) 1,925

TV: (2022년 1분기) 1,450 → (2023년 1분기 추정) 1,797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2월 생산, 전년동월비 7.2% 증가

- 2월 생산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7.2% 증가(전월비 0.7%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1.7%)

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도매 및 상품 증개업(2.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9.9%)이 증가하여 1.5% 증가

- 운수·창고업은 육상운송업(14.3%)과 항공운송업(271.9%)의 호조로 인해 20.6% 증가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화물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37.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5%)은 부진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19.6%), 음식점 및 주점업(22.9%)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22.5% 증가
- 세부 업종별로는 숙박업에서는 여관업(26.7%), 음식점 및 주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41.3%)이 호조세를 주도
- 정보통신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1.0%)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출판업(-7.4%), 방송업(-5.4%), 정보서비스업(-19.0%)의 부진으로 2.3% 감소
- 출판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9.5%), 정보서비스업은 기타 정보서비스업(-33.4%)이 감소세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15.3%), 보험 및 연금업(19.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7.4%) 등 모든 업종의 호조세로 인해 15.0%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4.8%),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4.5)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업(-2.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의 부진으로 1.0% 증가
- 전문서비스업은 법무관련 서비스업(13.4%),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5.7%)이 크게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6.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0%)을 중심으로 5.2% 증가
-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도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298.2%)이 크게 증가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6.0%), 사회복지 서비스업(3.1%) 등 모든 업종이 호조세를 보이며 5.3%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2월	1월*	2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2.9	118.3	126.8	109.8	106.9
상승률	-2.0	5.2	6.8	8.6	6.0	6.6	4.8	7.2
전기비	-	-	-	1.5	-0.8	1.6	-0.5	0.7
도·소매	-2.6	5.3	2.6	3.4	1.0	1.2	1.0	1.5
운수·창고	-14.1	4.2	17.7	23.9	17.7	15.4	11.2	20.6
숙박·음식점	-18.4	1.9	16.9	23.0	9.8	12.8	8.1	22.5
정보통신	1.5	12.2	1.8	3.7	-0.8	-0.7	0.0	-2.3
금융·보험	14.0	8.0	8.4	8.8	12.6	19.3	10.4	15.0
부동산	5.5	2.3	7.9	9.5	5.9	2.3	0.7	4.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5.0	-0.3	-2.9	-1.0	1.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6.9	4.2	4.1	4.2	5.2
교육	-4.5	1.5	1.2	0.7	0.3	0.0	1.7	0.0
보건·사회복지	1.5	5.1	7.2	5.3	6.3	7.3	6.8	5.3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63.5	27.1	20.5	11.0	32.1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6.9	5.9	9.8	5.7	8.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4.7	-4.9	-7.3	5.8	12.5
지식서비스	3.1	6.0	4.7	5.1	4.6	5.6	4.8	5.2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2.1%)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8.2%)도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7.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29.3%)의 실적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은 개인 서비스업(15.0%)이 크게 증가

(2) 고용

□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81만 4,000명(4.2%) 증가

- 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의 증가로 81만 4,000명(4.2%) 증가
 - 작년 2월 90만 9,000명 증가 이후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 기록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44만 2,000명(18.7%)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54.3%를 차지
 -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에 해당
-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18만 2,000명(8.7%) 증가하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전체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증가의 약 76.7%를 차지
- 공공행정·국방(13만 3,000명, 13.0%), 정보통신업(7만 5,000명, 8.0%), 협회·수리·개인서비스(5만 명, 4.6%), 예술·스포츠·여가(4만 명, 8.9%),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 6,000명, 2.8%)도 증가
-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으로는 도·소매업이 7만 9,000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운수·창고업(3만 7,000명, -2.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1만 9,000명, -1.3%) 순
 - 도·소매업은 재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기록
 - 운수·창고업도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2017년 10월 이후 처음
- 지식서비스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영향으로 56만 명(7.8%)이 증가
-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68만 1,000명 증가하였으며, 작년 2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2월	1월	2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19,918	19,890	19,729	19,515	19,813
증가율	-1.3	1.6	3.0	2.4	2.2	0.9	1.2	4.2
전기비	-	-	-	0.2	-0.1	-1.4	-1.1	1.5
도·소매	-4.4	-4.3	-1.2	-0.5	-2.1	-2.3	-1.9	-2.4
운수·창고	3.6	7.0	4.4	3.8	-0.4	-0.9	-2.4	-2.2
숙박·음식점	-6.9	-2.1	4.0	3.3	9.6	12.1	10.2	8.7
정보통신	-1.6	6.4	8.9	8.3	5.7	4.1	8.6	8.0
금융·보험	-2.7	2.8	-3.3	-2.4	-2.6	-1.4	-1.0	0.1
부동산	-7.0	2.7	4.0	2.4	0.4	-0.7	-0.7	1.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6.2	3.7	4.8	2.8	2.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6	-0.7	-0.4	-3.0	-1.3
공공행정·국방	3.3	2.8	6.1	5.9	5.8	-2.4	1.4	13.0
교육	-4.6	2.3	3.4	3.1	1.6	1.4	-2.5	0.3
보건·사회복지	5.9	8.5	7.1	4.6	5.8	-1.6	5.5	18.7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4.4	2.5	2.8	-2.9	8.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2.4	0.5	-0.8	-0.3	4.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16.7	-15.1	-14.0	-18.9	-14.5
지식서비스	0.2	5.4	5.0	4.2	3.5	1.0	2.7	7.8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108만 6,000명(2021년 12월) → 84만 7,000명(2022년 2월) → 46만 2,000명(2022년 6월) → 40만 9,000명(2022년 9월) → 20만 1,000명(2022년 12월) → 20만 9,000명(2023년 1월) → 68만 1,000명(2023년 2월)

(3) 서비스수지

□ 2월 서비스수지 20억 3,000만 달러 적자

- 2월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유지보수, 운송, 여행, 금융,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적자로 인해 20억 3,000만 달러 적자 기록
 - 여행, 지식재산권사용료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12억 3,900만 달러 적자 감소
-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전월비 9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3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이 7억 1,100만 달러 증가하고,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수입도 2억 달러 증가한 것이 흑자 전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3/4	4/4	12월	1월	2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2,336	-2,280	-1,392	-3,269	-2,030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444	-1,600	-552	-710	-415
유지보수	-913	-1,006	-1,621	-380	-538	-246	-150	-119
운송	2,132	15,427	13,121	3,200	1,363	173	120	-222
여행	-5,630	-6,226	-7,929	-2,296	-2,380	-1,137	-1,487	-1,009
건설	4,770	4,100	5,253	1,442	1,555	581	362	316
보험	-336	-295	40	-79	174	52	-4	-4
금융	1,757	1,647	310	-173	-27	92	69	-120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1,799	-982	-512	-952	3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1,054	-85	-526	275	342
기타 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2,105	-168	539	-813	-929
개인·문화·여가	184	783	1,182	277	483	184	34	180
정부	-629	-658	-506	-34	-76	-37	-14	-51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여행수지는 10억 9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
 - 일반여행 지급이 2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연수 지급도 1억 달러 이상 감소한 영향
- 가공서비스, 유지보수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가 감소하였고,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여가서비스는 흑자가 증가
 - 가공서비스는 2억 9,000만 달러 이상 적자가 감소하였고, 개인, 문화, 여가서비스는 1억 4,000만 달러 이상 흑자 증가
- 운송수지는 전월 1억 2,000만 달러 흑자에서 2억 2,200만 달러 적자로 전환
 - 운송수지의 적자 전환은 해상운송 수입이 3억 달러 이상 급감하였고, 항공운송 수입도 1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에 기인
- 금융서비스 수지도 전월 6,9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
 - 금융서비스 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명시적 수수료 및 기타금융서비스 지급, 금융중개 서비스 지급 등 금융서비스 지급이 2억 달러 이상 증가
- 기타사업서비스 수지는 지난 달에 이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 규모도 1억 달러 이상 증가
 - 연구개발서비스 수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 수지는 각각 4억 달러, 1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 수지가 6억 달러 이상 감소하여 적자가 증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2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8.1% 감소
 - 강원(19.1%), 경남(9.8%), 제주(9.6%)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기(-25.6%), 서울(-11.8%), 충남(-3.7%)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0.3	8.2	1.4	5.6	1.4	-6.4	-5.5	-10.5	-13.0	-8.1
수도권	서울	-13.4	9.1	-2.0	-1.4	-4.7	-10.5	-5.5	-14.9	-11.3	-11.8
	인천	-1.0	13.2	1.0	-0.4	11.3	4.8	7.0	2.1	-0.2	5.7
	경기	9.3	14.3	4.1	12.3	2.5	-10.5	-9.8	-14.6	-23.0	-25.6
충청권	대전	-6.8	4.2	-1.4	-5.1	-1.4	-1.4	2.4	-3.4	-2.7	3.8
	세종	8.0	10.4	3.3	3.9	0.9	3.4	2.2	5.0	1.2	7.0
	충북	-6.5	14.4	-0.8	12.5	-3.6	-13.9	-7.0	-27.6	-8.5	5.1
	충남	-2.3	12.0	-0.2	0.5	-2.2	-1.7	-2.0	-5.5	-11.5	-3.7

(계속)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호남권	광주	0.1	7.3	3.2	3.2	10.8	-2.6	0.2	-7.3	-5.6	6.3
	전북	-5.5	7.8	2.9	1.5	6.8	0.3	1.7	-5.6	-9.1	-1.7
	전남	-0.8	8.0	-2.9	-0.4	-3.9	-11.2	-10.9	-11.3	-9.4	-0.9
대경권	대구	-11.0	11.5	5.0	2.8	8.0	5.9	3.6	0.9	1.0	9.0
	경북	-5.7	4.8	-1.4	0.3	3.5	-6.0	-3.6	-14.2	-4.1	6.0
동남권	부산	-6.1	2.4	9.7	8.3	15.9	7.7	12.0	-2.2	-2.9	4.3
	울산	-6.8	6.6	-1.0	0.9	-3.0	-3.8	-2.8	-5.8	-13.1	5.0
	경남	-7.2	3.9	5.7	4.7	6.3	5.4	3.9	4.8	-0.2	9.8
강원권		-5.3	1.7	5.7	7.6	6.8	4.9	1.7	6.8	1.5	19.1
제주권		-6.1	5.4	6.7	3.5	5.7	4.9	6.6	1.0	-7.0	9.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2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71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1% 증가
 - 제주(-0.3%), 경남(-0.1%)은 소폭 감소했으며, 세종(8.1%), 전북(3.2%), 충남(2.8%)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26,904 (-0.8)	27,273 (1.4)	28,089 (3.0)	28,347 (3.2)	28,425 (2.8)	28,216 (2.2)	28,421 (2.3)	27,808 (1.9)	27,363 (1.5)	27,714 (1.1)
수도권	서울	5,051 (-0.7)	5,055 (0.1)	5,113 (1.1)	5,134 (1.0)	5,133 (1.1)	5,127 (0.5)	5,139 (0.7)	5,135 (0.2)	5,057 (0.6)	5,089 (0.3)
	인천	1,560 (-1.3)	1,563 (0.2)	1,614 (3.3)	1,614 (2.5)	1,639 (4.1)	1,641 (4.5)	1,655 (4.0)	1,622 (5.2)	1,597 (4.5)	1,619 (2.7)
	경기	6,909 (-0.6)	7,150 (3.5)	7,597 (6.3)	7,698 (7.6)	7,694 (6.1)	7,606 (3.6)	7,630 (3.5)	7,529 (2.7)	7,403 (1.6)	7,455 (0.6)

(계속)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충청권	대전	780 (1.0)	785 (0.6)	794 (1.1)	789 (0.3)	797 (0.0)	805 (1.1)	804 (0.1)	802 (1.6)	789 (1.2)	799 (1.7)
	세종	180 (7.1)	185 (2.8)	197 (6.5)	199 (5.9)	201 (6.3)	202 (9.2)	204 (10.3)	201 (11.7)	200 (11.1)	201 (8.1)
	충북	890 (1.1)	897 (0.8)	926 (3.2)	940 (3.6)	938 (3.1)	930 (1.8)	941 (2.6)	906 (0.3)	875 (-0.5)	905 (1.5)
	충남	1,176 (-1.7)	1,193 (1.4)	1,226 (2.8)	1,241 (2.0)	1,267 (2.9)	1,245 (3.0)	1,267 (3.9)	1,185 (1.4)	1,151 (2.5)	1,162 (2.8)
호남권	광주	748 (-0.3)	745 (-0.4)	750 (0.7)	749 (-0.4)	754 (0.4)	757 (2.3)	764 (2.8)	745 (2.3)	753 (3.2)	759 (2.6)
	전북	932 (0.4)	953 (2.3)	968 (1.6)	986 (2.5)	991 (2.2)	961 (0.6)	981 (1.1)	918 (-0.6)	929 (0.7)	963 (3.2)
	전남	974 (0.0)	985 (1.1)	1,010 (2.5)	1,024 (2.9)	1,021 (2.0)	1,016 (2.0)	1,034 (2.6)	989 (2.6)	980 (1.7)	1,003 (1.8)
대경권	대구	1,184 (-2.9)	1,217 (2.8)	1,228 (0.9)	1,233 (0.3)	1,239 (0.6)	1,226 (0.1)	1,230 (-0.2)	1,213 (0.2)	1,196 (-0.7)	1,222 (0.7)
	경북	1,418 (-0.8)	1,410 (-0.6)	1,462 (3.7)	1,492 (5.3)	1,486 (3.3)	1,464 (2.5)	1,484 (3.3)	1,416 (1.4)	1,386 (1.2)	1,428 (2.1)
동남권	부산	1,640 (-2.1)	1,657 (1.0)	1,679 (1.3)	1,681 (0.7)	1,696 (0.8)	1,692 (2.0)	1,696 (1.6)	1,689 (2.7)	1,677 (3.3)	1,663 (0.2)
	울산	560 (-1.9)	555 (-0.9)	566 (2.0)	569 (3.1)	572 (2.5)	571 (2.0)	576 (2.1)	564 (2.4)	559 (2.0)	562 (2.7)
	경남	1,729 (-1.1)	1,732 (0.2)	1,740 (0.5)	1,766 (0.2)	1,744 (-0.9)	1,740 (0.9)	1,760 (1.0)	1,713 (2.3)	1,680 (0.4)	1,707 (-0.1)
강원권	795 (-2.0)	809 (1.8)	818 (1.1)	838 (0.7)	848 (0.8)	820 (0.0)	841 (-0.2)	773 (-0.4)	741 (2.3)	786 (1.7)	
제주권	378 (-1.0)	383 (1.3)	402 (5.0)	397 (2.3)	404 (6.3)	413 (6.2)	416 (5.9)	408 (4.9)	391 (0.5)	391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를 기록
 - 전월에 이어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대구(5.3%), 경남(3.4%), 경북(1.0%)이 전월 대비 증가를 기록했고, 세종(-39.5%), 충남(-35.3%), 제주(-25.0%) 등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를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5.5	25.7	6.1	13.0	5.8	-10.0	-14.2	-9.7	-16.4	-7.5
수도권	서울	-7.1	28.5	-2.4	0.5	-3.3	-12.9	-12.7	-12.8	-20.4	1.8
	인천	-0.8	25.7	14.5	21.7	23.4	-9.3	-22.6	-5.5	-7.4	-1.6
	경기	-1.3	19.7	-0.3	6.0	-2.0	-16.4	-20.4	-12.4	-24.2	-12.0
충청권	대전	24.0	-1.3	-5.4	10.2	-8.9	-18.3	-21.4	-19.6	-25.1	3.0
	세종	1.2	17.8	5.8	21.3	5.7	-15.4	-16.1	-25.9	-27.9	-39.5
	충북	12.6	15.7	12.7	25.1	15.2	-1.0	2.6	-4.8	-5.1	-4.9
	충남	-0.5	30.9	3.2	14.4	-3.8	-20.6	-25.3	-29.3	-39.4	-35.3
호남권	광주	2.7	20.6	8.1	12.1	19.0	-1.6	6.1	-15.4	1.9	11.0
	전북	-10.6	33.9	5.1	7.2	2.4	-11.2	-12.4	-6.2	-23.8	-5.4
	전남	-16.9	59.8	14.2	31.5	13.6	-13.3	-19.4	-13.8	-12.3	-20.1
대경권	대구	-16.4	26.6	34.1	36.1	46.5	28.1	33.7	19.5	5.3	48.3
	경북	-1.6	19.5	5.8	13.9	-1.1	-8.7	-11.4	-11.7	1.0	8.4
동남권	부산	-18.7	30.9	9.3	12.1	7.8	-6.9	-11.0	-5.1	-11.0	-10.4
	울산	-19.3	32.4	21.3	24.2	25.8	8.9	8.1	12.5	-4.3	11.9
	경남	-8.8	9.4	-7.2	-6.7	-1.4	-5.6	-17.6	12.5	3.1	-0.4
강원권		-3.1	34.9	0.8	12.7	-11.7	-12.4	-14.7	-5.5	-22.5	-18.9
제주권		4.0	47.1	-13.6	-16.7	-31.0	-18.5	-17.4	-8.7	-18.8	-25.0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수도권

□ 서울

- 생산 감소(-11.8%), 고용 소폭 증가(0.3%), 수출 증가(1.8%)
 - 주요 업종인 식료품(26.8%)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및 모피제품(-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2.2%)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전체 생산도 감소
 - 제조업(1.6%) 고용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1%)의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에 그침.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32.5%)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25.4%), 반도체(12.9%) 등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인천

- 생산 증가(5.7%), 고용 증가(2.7%), 수출 감소(-1.6%)
 - 주요 업종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11.5%)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0.5%), 기타 기계 및 장비(24.1%) 등의 생산 증가로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6.7%)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2%)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1.8%)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8.5%), 농약 및 의약품(-15.4%)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경기

- 생산 감소(-25.6%),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감소(-12.0%)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1.7%)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서울	의복 및 포피제품	-20.7	3.6	-0.1	5.2	3.9	-9.8	-12.4	-4.5	-10.5	-1.9
		전자부품 외	-16.5	9.0	-3.9	-2.5	-2.0	1.8	-3.1	-14.0	-4.4	-12.2
		식료품	-8.0	-2.3	4.5	1.3	4.9	5.2	7.6	19.1	11.8	26.8
	인천	기계 및 장비	-1.3	62.9	-12.3	-19.1	50.3	16.8	28.8	11.3	16.1	24.1
		전자부품 외	40.9	5.4	14.5	19.6	13.8	10.8	20.3	20.8	28.6	20.5
		의약품 외	2.9	26.2	14.9	15.7	24.0	-2.6	-13.2	-13.4	-12.4	-11.5
	경기	전자부품 외	21.1	23.3	7.8	26.8	2.6	-19.8	-21.8	-24.4	-35.2	-47.2
		기계 및 장비	12.6	14.2	3.7	-4.8	10.0	13.7	32.1	5.0	-14.4	11.7
		고무 및 플라스틱	-3.9	0.6	-3.6	-0.4	-4.1	-6.2	-5.5	-10.2	-17.5	-7.4
고용	서울	농림·어업	7 (-12.5)	5 (-28.6)	6 (20.0)	7 (0.0)	7 (133.3)	6 (50.0)	6 (50.0)	6 (50.0)	5 (25.0)	5 (25.0)
		제조업	447 (-0.4)	442 (-1.1)	450 (1.8)	449 (2.3)	457 (4.3)	440 (-0.5)	438 (-0.7)	443 (0.5)	450 (-0.9)	457 (1.6)
		SOC·서비스	4,597 (-0.7)	4,609 (0.3)	4,658 (1.1)	4,678 (0.9)	4,670 (0.7)	4,681 (0.5)	4,696 (0.8)	4,686 (0.1)	4,603 (0.7)	4,627 (0.1)
	인천	농림·어업	14 (-6.7)	9 (-35.7)	2 (-77.8)	2 (-83.3)	2 (-81.8)	2 (-50.0)	2 (-60.0)	2 (100.0)	2 (100.0)	2 (100.0)
		제조업	324 (-1.2)	312 (-3.7)	322 (3.2)	323 (6.6)	322 (2.5)	321 (0.3)	315 (-3.1)	319 (-0.9)	309 (-3.4)	305 (-6.7)
		SOC·서비스	1,221 (-1.4)	1,241 (1.6)	1,289 (3.9)	1,288 (2.2)	1,314 (5.2)	1,318 (5.8)	1,337 (6.1)	1,301 (6.8)	1,286 (6.6)	1,312 (5.2)
	경기	농림·어업	107 (-9.3)	107 (0.0)	131 (22.4)	146 (19.7)	162 (30.6)	127 (11.4)	143 (18.2)	83 (-7.8)	71 (-14.5)	73 (-8.8)
		제조업	1,283 (1.9)	1,344 (4.8)	1,468 (9.2)	1,477 (9.0)	1,489 (13.2)	1,483 (10.5)	1,487 (9.7)	1,460 (8.1)	1,439 (2.6)	1,442 (2.1)
		SOC·서비스	5,519 (-1.0)	5,699 (3.3)	5,999 (5.3)	6,075 (7.0)	6,043 (3.9)	5,995 (1.9)	6,001 (1.7)	5,985 (1.6)	5,893 (1.6)	5,940 (0.4)
수출	서울	53,332 (-7.1)	68,538 (28.5)	66,904 (-2.4)	17,734 (0.5)	16,437 (-3.3)	15,370 (-12.9)	5,113 (-12.7)	5,299 (-12.8)	4,679 (-20.4)	5,511 (1.8)	
	인천	37,701 (-0.8)	47,395 (25.7)	54,309 (14.6)	13,049 (21.7)	14,726 (23.4)	13,327 (-9.3)	4,445 (-22.6)	4,354 (-5.5)	3,973 (-7.4)	3,891 (-1.6)	
	경기	115,157 (-1.3)	137,832 (19.7)	137,460 (-0.3)	36,256 (6.0)	34,593 (-2.0)	31,111 (-16.4)	9,981 (-20.4)	11,450 (-12.4)	8,614 (-24.2)	9,594 (-12.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7.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7.4%) 등의 생산으로 지역 전체 생산도 감소

- 제조업(2.1%)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8.8%) 감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89.7%)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50.6%), 반도체제조용장비(-16.2%)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2) 충청권

□ 대전

- 생산 증가(3.8%), 고용 증가(1.7%), 수출 증가(3.0%)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5.4%)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16.5%), 담배 제조업(28.3%)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2.5%)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의 고용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22.4%)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펌프(10.0%), 자동차부품(38.2%) 등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세종

- 생산 증가(7.0%), 고용 증가(8.1%), 수출 감소(-39.5%)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53.5%)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1.5%), 식료품 제조업(15.1%)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73.0%), 정밀화학원료(-23.5%), 농약 및 의약품(-0.7%) 모두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11.6	-2.6	-1.8	-8.6	11.4	2.1	-0.3	-1.4	8.1	28.3
		화학제품 외	-4.7	-10.0	-21.2	-24.0	-39.6	-27.7	-31.5	-25.2	-49.3	-45.4
		기계 및 장비	-23.6	1.2	8.1	-9.9	21.2	12.6	19.3	26.2	17.3	16.5
	세종	전자부품 외	26.7	30.8	7.6	17.7	9.0	-20.4	-23.2	-37.5	-42.5	-53.5
		화학제품 외	6.7	3.8	3.4	0.4	-18.1	24.1	8.7	87.0	49.8	61.5
		식료품	12.7	2.5	-1.5	-7.7	11.7	6.2	16.0	0.2	3.0	15.1
	대전	전자부품 외	-14.3	32.4	-5.1	30.8	-14.5	-44.5	-30.4	-61.8	-40.4	-24.2
		화학제품 외	-9.3	19.3	-38.1	-20.3	-52.3	-29.3	-23.4	-40.4	-29.4	-9.5
		식료품	6.9	4.5	2.7	6.5	4.1	-4.5	-2.5	-8.1	-12.9	-2.1
	세종	전자부품 외	-9.5	27.2	-7.9	-4.4	-18.0	-12.6	-13.1	-21.0	-27.1	-2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4.8	7.9	3.6	26.2	13.6	19.8	9.3	41.5	25.0
		화학제품 외	1.1	9.3	-4.0	1.9	-9.5	-11.1	-12.0	-18.1	-12.6	-9.2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8 (0.0)	9 (12.5)	9 (12.5)	9 (12.5)	8 (-20.0)	8 (-20.0)	6 (-33.3)	6 (-25.0)	7 (-22.2)
		제조업	105 (2.9)	91 (-13.3)	78 (-14.3)	78 (-16.1)	76 (-16.5)	78 (-9.3)	76 (-13.6)	77 (-7.2)	75 (-9.6)	77 (-2.5)
		SOC·서비스	667 (0.9)	684 (2.5)	707 (3.4)	702 (2.5)	712 (2.2)	720 (3.0)	721 (2.3)	719 (3.3)	708 (2.9)	715 (2.6)
	세종	농림·어업	8 (0.0)	9 (12.5)	8 (-11.1)	10 (-9.1)	8 (-27.3)	7 (-12.5)	8 (-11.1)	6 (20.0)	4 (-20.0)	5 (0.0)
		제조업	24 (0.0)	24 (0.0)	28 (16.7)	28 (21.7)	29 (20.8)	30 (20.0)	31 (24.0)	31 (24.0)	29 (16.0)	29 (11.5)
		SOC·서비스	148 (8.8)	153 (3.4)	161 (5.2)	162 (4.5)	164 (6.5)	164 (7.9)	165 (9.3)	164 (8.6)	167 (11.3)	167 (7.7)
	대전	농림·어업	93 (4.5)	96 (3.2)	101 (5.2)	106 (5.0)	109 (4.8)	97 (-4.0)	101 (-1.9)	85 (-9.6)	78 (-16.1)	87 (-5.4)
		제조업	201 (5.8)	212 (5.5)	198 (-6.6)	198 (-7.0)	194 (-6.3)	189 (-10.4)	189 (-10.0)	188 (-12.6)	189 (-11.7)	186 (-11.0)
		SOC·서비스	596 (-0.8)	588 (-1.3)	626 (6.5)	634 (7.1)	635 (6.0)	644 (7.2)	650 (7.8)	633 (6.7)	608 (6.5)	632 (7.3)
	세종	농림·어업	162 (13.3)	177 (9.3)	179 (1.1)	211 (7.1)	205 (-0.5)	161 (-9.6)	176 (-5.4)	110 (-20.9)	100 (-14.5)	105 (-18.6)
		제조업	250 (-7.4)	257 (2.8)	252 (-1.9)	242 (-6.6)	254 (1.6)	258 (-1.5)	258 (-1.5)	257 (-4.5)	263 (1.5)	264 (7.3)
		SOC·서비스	764 (-2.4)	760 (-0.5)	795 (4.6)	788 (3.7)	808 (4.3)	825 (7.3)	833 (8.0)	818 (7.5)	788 (5.5)	793 (5.0)
수출	대전	5,018 (24.0)	4,953 (-1.3)	4,686 (-5.4)	1,295 (10.2)	1,131 (-8.9)	1,028 (-18.3)	335 (-21.4)	345 (-19.6)	314 (-25.1)	383 (3.0)	
	세종	1,300 (1.2)	1,532 (17.8)	1,621 (5.8)	438 (21.3)	410 (5.7)	356 (-15.4)	115 (-16.1)	103 (-25.9)	98 (-27.9)	78 (-39.5)	
	충북	5,018 (24.0)	28,766 (15.7)	32,428 (12.7)	8,402 (25.1)	8,731 (15.2)	7,177 (-1.0)	2,361 (2.6)	2,582 (-4.8)	2,396 (-5.1)	2,377 (-4.9)	
	충남	1,300 (1.2)	104,122 (30.9)	107,489 (3.2)	28,333 (14.4)	27,118 (-3.8)	23,107 (-20.6)	7,439 (-25.3)	7,176 (-29.3)	5,562 (-39.4)	5,752 (-35.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충북

- 생산 증가(5.1%), 고용 증가(1.5%), 수출 감소(-4.9%)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4.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5%), 식료품 제조업(-2.1%) 생산이 모두 감소했으나 그 외 업종들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제조업(-11.0%)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3%)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정밀화학원료(194.0%), 건전지 및 축전지(23.9%)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15.4%)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생산 감소(-3.7%), 고용 증가(2.8%), 수출 감소(-35.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5.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5.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2%)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8.6%)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7.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0%)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력수출품 중 석유제품(8.5%)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7.3%), 반도체(-44.6%)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3) 호남권

□ 광주

- 생산 증가(6.3%),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11.0%)
 - 주요 업종인 전기장비(-27.9%)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42.2%), 기타 기계 및 장비(6.5%)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4/4	3/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9	1.4	9.7	5.5	21.7	11.8	17.0	1.2	-6.3	42.2
		전기장비	8.7	15.7	-7.6	-0.2	-23.0	-22.2	-22.2	-13.4	-34.5	-27.9
		기계 및 장비	-11.2	10.6	1.0	-3.2	12.1	-5.4	12.7	-20.4	1.2	6.5
	전북	식료품	-0.6	-1.2	2.9	4.8	6.2	-3.0	-1.6	-6.3	-8.9	-6.9
		화학제품 외	-11.1	-1.5	-4.3	-6.8	-1.7	-4.5	1.2	-7.6	-3.9	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0	17.2	14.2	8.8	27.6	16.1	18.3	10.6	-16.8	1.2
	전남	화학제품 외	-2.9	11.5	-6.5	-1.6	-8.9	-21.5	-21.4	-19.5	-14.4	-5.2
		1차 금속 제조업	-8.2	7.6	-2.9	-5.2	-1.9	-2.2	-1.3	-2.5	-7.9	0.7
		석유정제품	-3.8	11.1	3.8	1.8	2.5	3.3	3.4	2.5	5.5	0.6
고용	광주	농림·어업	16 (23.1)	12 (-25.0)	15 (25.0)	16 (23.1)	16 (33.3)	15 (15.4)	15 (15.4)	17 (30.8)	17 (30.8)	18 (38.5)
		제조업	107 (-2.7)	100 (-6.5)	104 (4.0)	107 (7.0)	105 (9.4)	102 (1.0)	102 (3.0)	102 (-1.9)	99 (-4.8)	99 (-2.0)
		SOC·서비스	625 (-0.2)	632 (1.1)	631 (-0.2)	626 (-2.0)	634 (-1.6)	639 (1.9)	647 (2.7)	626 (2.5)	637 (3.9)	642 (2.6)
	전북	농림·어업	179 (6.5)	169 (-5.6)	172 (1.8)	179 (0.0)	186 (8.1)	170 (3.7)	176 (6.7)	151 (-1.3)	146 (-2.0)	150 (0.7)
		제조업	123 (0.0)	120 (-2.4)	119 (-0.8)	113 (-4.2)	117 (0.9)	124 (0.8)	125 (1.6)	122 (-0.8)	123 (-0.8)	124 (3.3)
		SOC·서비스	630 (-0.8)	663 (5.2)	677 (2.1)	693 (4.4)	688 (1.0)	667 (-0.1)	679 (-0.4)	644 (-0.6)	660 (1.7)	688 (3.6)
	전남	농림·어업	205 (7.3)	221 (7.8)	234 (5.9)	235 (6.3)	241 (5.2)	238 (3.5)	240 (2.6)	234 (5.4)	224 (3.2)	212 (-3.6)
		제조업	106 (1.9)	97 (-8.5)	99 (2.1)	100 (3.1)	99 (1.0)	95 (-3.1)	96 (-3.0)	97 (0.0)	101 (-1.0)	105 (7.1)
		SOC·서비스	662 (-2.4)	667 (0.8)	678 (1.6)	688 (1.6)	680 (0.9)	683 (2.2)	699 (3.7)	659 (2.3)	656 (1.7)	686 (2.8)
수출	광주	13,772 (2.7)	16,604 (20.6)	17,946 (8.1)	4,700 (12.1)	4,703 (19.0)	4,359 (-1.6)	1,546 (6.1)	1,361 (-15.4)	1,430 (1.9)	1,372 (11.0)	
	전북	5,842 (-10.6)	7,820 (33.9)	8,223 (5.2)	2,145 (7.2)	2,013 (2.4)	1,862 (-11.2)	620 (-12.4)	646 (-6.2)	569 (-23.8)	643 (-5.4)	
	전남	27,092 (-16.9)	43,294 (59.8)	49,438 (14.2)	13,386 (31.5)	13,161 (13.6)	10,879 (-13.3)	3,416 (-19.4)	3,562 (-13.8)	3,192 (-12.3)	3,360 (-2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제조업(-2.0%)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38.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34.5%)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1.0%), 냉장고(56.4%) 등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전북

- 생산 감소(-1.7%), 고용 증가(3.2%), 수출 감소(-5.4%)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5%)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6.9%)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0.7), 제조업(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 전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건설광산기계(54.4%), 자동차(4.7%)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40.6%), 동제품(-30.5%), 농약 및 의약품(-16.7%)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남

- 생산 소폭 감소(-0.9%), 고용 증가(1.8%), 수출 감소(-20.1%)
 - 주요 업종인 석유정제품(0.6%), 1차 금속 제조업(0.7%)의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2%)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3.6%)의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7.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8%)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8.9%), 합성수지(-18.4%), 석유제품(-7.3%) 모두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4) 대경권

□ 대구

- 생산 증가(9.0%), 고용 소폭 증가(0.7%), 수출 증가(48.3%)
 - 주요 업종인 금속가공제품(1.5%), 자동차 및 트레일러(22.2%), 기타 기계 및 장비(19.6%)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13.4	7.2	-3.2	-4.3	-3.8	0.1	8.7	-5.9	4.0	1.5
		기계 및 장비	-16.9	31.1	11.0	9.6	9.8	14.7	-6.2	6.7	11.3	1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7	11.7	9.0	7.0	15.0	15.3	17.2	8.6	1.4	22.2
	경북	전자부품 외	-11.4	7.3	-7.4	-9.0	-2.5	-9.1	-1.1	-35.3	8.8	14.4
		1차 금속	-2.8	1.8	-16.7	-4.4	-21.0	-39.1	-41.2	-28.3	-22.8	-5.7
		자동차 및 트레일러	-6.8	10.1	16.9	14.3	22.4	27.4	28.9	18.2	11.6	28.2
고용	대구	농림·어업	31 (-6.1)	15 (-51.6)	10 (-33.3)	12 (-25.0)	11 (0.0)	10 (-9.1)	11 (0.0)	8 (-11.1)	6 (-25.0)	7 (0.0)
		제조업	231 (-7.2)	239 (3.5)	240 (0.4)	239 (-2.8)	244 (1.2)	240 (2.6)	242 (2.1)	242 (3.4)	238 (-0.4)	242 (1.7)
		SOC·서비스	923 (-1.4)	963 (4.3)	978 (1.6)	982 (1.6)	984 (0.5)	976 (-0.4)	977 (-0.7)	963 (-0.5)	952 (-0.7)	973 (0.4)
	경북	농림·어업	262 (4.4)	274 (4.6)	280 (2.2)	286 (0.4)	292 (-0.3)	293 (8.1)	307 (12.0)	266 (9.9)	244 (2.5)	259 (5.3)
		제조업	292 (-2.3)	283 (-3.1)	293 (3.5)	298 (7.6)	296 (5.3)	280 (-5.1)	275 (-7.1)	277 (-7.7)	270 (-9.4)	267 (-11.3)
		SOC·서비스	863 (-1.8)	853 (-1.2)	888 (4.1)	908 (6.3)	897 (3.8)	891 (3.4)	902 (4.2)	874 (2.2)	873 (4.8)	903 (6.1)
수출	대구	6,265 (-16.4)	7,934 (26.6)	10,642 (34.1)	2,653 (36.1)	2,799 (46.5)	2,840 (28.1)	999 (33.7)	970 (19.5)	840 (5.3)	1,007 (48.3)	
	경북	37,096 (-1.6)	44,314 (19.5)	46,888 (5.8)	11,743 (13.9)	10,985 (-1.1)	11,497 (-8.7)	3,808 (-11.4)	3,841 (-11.7)	4,047 (1.0)	3,959 (8.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이 소폭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176.0%), 농기계(58.8%), 자동차부품(6.1%) 모두 수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

□ 경북

- 생산 증가(6.0%), 고용 증가(2.1%), 수출 증가(8.4%)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5.7%)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28.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4.4%)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1.3%)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1%)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3.8%)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126.4%), 철강판(39.3%)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5) 동남권

□ 부산

- 생산 증가(4.3%), 고용 소폭 증가(0.2%), 수출 감소(-10.4%)
- 주요 업종인 식료품제조업(-7.0%)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31.4%), 기타 기계 및 장비(22.0%) 등의 생산 증가로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11.1%)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4.8%) 고용 감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0.9%) 고용이 소폭만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주단조품(40.9%)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1.2%), 철강판(-35.0%)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부산	기계 및 장비	-3.5	-2.5	4.5	7.0	4.8	3.3	6.3	-1.5	-3.6	22.0
		금속 가공제품	-4.9	-11.5	2.0	-1.5	8.6	12.5	20.9	7.8	6.0	31.4
		식료품	-2.0	3.6	-0.8	0.5	-3.1	-8.2	-7.7	-10.4	-15.1	-7.0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9.4	2.7	2.2	2.2	6.5	10.1	10.9	10.8	-0.4	25.5
		화학제품 외	-2.8	6.9	-10.5	-6.7	-17.4	-16.2	-17.9	-15.6	-15.3	-11.1
		석유정제품	-9.2	-1.5	9.4	8.7	12.3	0.2	1.0	-6.4	-7.4	-4.6
	경남	기계 및 장비	-9.7	9.9	4.1	-1.6	5.1	8.4	11.1	10.4	2.0	22.0
		기타 운송장비	-12.4	-12.7	18.6	21.0	19.3	13.3	14.7	9.7	5.9	10.9
		금속가공제품	-2.9	-5.7	8.7	5.0	15.8	18.6	6.1	24.7	8.3	21.1
고용	부산	농림·어업	7 (0.0)	11 (57.1)	19 (72.7)	20 (100.0)	18 (50.0)	19 (35.7)	20 (53.8)	20 (17.6)	20 (17.6)	20 (11.1)
		제조업	255 (-10.2)	240 (-5.9)	225 (-6.3)	229 (-6.1)	222 (-6.3)	222 (-1.8)	220 (-3.9)	223 (1.4)	226 (1.8)	219 (-4.8)
		SOC·서비스	1,378 (-0.5)	1,407 (2.1)	1,435 (2.0)	1,432 (1.1)	1,456 (1.6)	1,451 (2.2)	1,456 (2.0)	1,445 (2.6)	1,431 (3.3)	1,424 (0.9)
	울산	농림·어업	7 (16.7)	6 (-14.3)	6 (0.0)	6 (0.0)	7 (0.0)	7 (40.0)	7 (40.0)	6 (20.0)	6 (20.0)	5 (0.0)
		제조업	162 (-8.0)	163 (0.6)	168 (3.1)	163 (0.6)	172 (5.5)	181 (11.7)	181 (11.7)	184 (14.3)	178 (11.9)	178 (13.4)
		SOC·서비스	392 (0.8)	385 (-1.8)	392 (1.8)	401 (4.4)	394 (1.3)	384 (-2.0)	388 (-2.3)	374 (-3.1)	376 (-2.1)	380 (-1.6)
	경남	농림·어업	184 (3.4)	203 (10.3)	220 (8.4)	234 (13.0)	238 (5.8)	214 (2.4)	214 (1.4)	195 (3.7)	184 (-0.5)	194 (-0.5)
		제조업	399 (0.8)	377 (-5.5)	390 (3.4)	394 (3.7)	381 (3.0)	395 (4.8)	401 (6.1)	398 (3.1)	380 (-2.6)	366 (-4.2)
		SOC·서비스	1,145 (-2.4)	1,151 (0.5)	1,130 (-1.8)	1,138 (-3.1)	1,126 (-3.3)	1,131 (-0.6)	1,145 (-0.8)	1,120 (1.8)	1,115 (1.5)	1,147 (1.4)
수출	부산	11,320 (-18.7)	14,816 (30.9)	16,192 (9.3)	4,215 (12.1)	4,117 (7.8)	3,858 (-6.9)	1,287 (-11.0)	1,315 (-5.1)	1,154 (-11.0)	1,172 (-10.4)	
	울산	56,091 (-19.3)	74,268 (32.4)	90,154 (21.4)	23,353 (24.2)	23,194 (25.8)	22,258 (8.9)	7,005 (8.1)	8,289 (12.5)	6,439 (-4.3)	7,762 (11.9)	
	경남	35,893 (-8.8)	39,262 (9.4)	36,429 (-7.2)	8,623 (-6.7)	9,233 (-1.4)	9,336 (-5.6)	3,081 (-17.6)	3,325 (12.5)	2,880 (3.1)	3,039 (-0.4)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울산

- 생산 증가(5.0%), 고용 증가(2.7%), 수출 감소(11.9%)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1%), 석유정제품(-4.6%)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25.5%) 등의 생산이 증가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6%)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3.4%)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29.7%), 석유제품(22.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0.2%)은 수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합성수지(-27.4%) 등 다수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경남

- 생산 증가(9.8%), 고용 소폭 감소(-0.1%), 수출 소폭 감소(-0.4%)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2.0%), 금속가공제품(21.1%), 기타 운송장비(10.9%) 모두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4%)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4.2%)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주요 수출품인 원동기 및 펌프(17.3%), 자동차부품(0.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4.9%) 등의 수출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6) 강원·제주권

□ 강원

- 생산 증가(19.1%), 고용 증가(1.7%), 수출 감소(-18.9%)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2.4%), 식료품 제조업(-3.0%)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음료 제조업(17.3%)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23.3%), 제조업(-14.3%)의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3%)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4.6	-1.4	-1.6	-2.6	-1.9	-3.1	-3.7	-12.0	-15.0	-2.4
		식료품	-2.1	1.2	0.8	8.7	-1.6	-7.7	-8.7	-10.4	-16.1	-3.0
		음료	-4.2	5.0	29.6	33.8	34.3	17.2	6.2	15.2	15.8	17.3
	제주	음료	-0.7	4.4	0.8	0.4	-5.6	1.0	7.1	-14.0	-23.7	46.6
		식료품	-2.5	2.4	8.1	8.7	8.1	2.0	0.6	2.2	-0.6	2.8
		비금속 광물제품	-28.8	4.0	1.4	-8.4	12.2	-8.6	0.5	-18.9	-3.4	3.6
고용	강원	농림·어업	82 (-10.9)	69 (-15.9)	72 (4.3)	88 (17.3)	88 (7.3)	64 (-11.1)	73 (-6.4)	38 (-32.1)	32 (-20.0)	33 (-23.3)
		제조업	57 (1.8)	55 (-3.5)	54 (-1.8)	54 (0.0)	52 (-5.5)	53 (-5.4)	53 (-7.0)	51 (-8.9)	49 (-12.5)	48 (-14.3)
		SOC·서비스	649 (-1.4)	678 (4.5)	686 (1.2)	689 (-1.1)	703 (0.9)	699 (2.0)	711 (1.4)	680 (3.5)	656 (5.8)	701 (5.3)
	제주	농림·어업	74 (10.4)	67 (-9.5)	63 (-6.0)	64 (-5.9)	62 (0.0)	65 (-1.5)	64 (-7.2)	66 (1.5)	57 (-9.5)	53 (-11.7)
		제조업	12 (0.0)	14 (16.7)	16 (14.3)	16 (14.3)	16 (6.7)	16 (-5.9)	16 (-5.9)	16 (-5.9)	16 (0.0)	15 (-11.8)
		SOC·서비스	292 (-3.6)	302 (3.4)	323 (7.0)	317 (3.6)	326 (7.9)	333 (8.8)	336 (9.4)	326 (6.2)	319 (2.9)	323 (2.5)
	수출	강원	2,023 (-3.1)	2,729 (34.9)	2,750 (0.8)	743 (12.7)	634 (-11.7)	630 (-12.4)	203 (-14.7)	208 (-5.5)	183 (-22.5)	198 (-18.9)
		제주	155 (4.0)	228 (47.1)	197 (-13.6)	50 (-16.7)	40 (-31.0)	53 (-18.5)	19 (-17.4)	21 (-8.7)	13 (-18.8)	12 (-25.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26.4%), 전자응용기기(14.4%), 농산가공품(6.7%)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약 및 의약품(-33.9%) 등 다수 품목의 수출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제주

- 생산 증가(9.6%), 고용 소폭 감소(-0.3%), 수출 감소(-25.0%)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46.6%), 비금속 광물제품(3.6%), 식료품 제조업(2.8%) 모두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1.7%), 제조업(-11.8%)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지역 수출품 중 어류(14.2%), 기호식품(165.1%)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4.5%)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01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와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중요성

(1)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 추진

- 2023년 3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2023~2042년)'을 발표, 산업부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완화할 방침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이행수단을 수정
 - 특히, 산업부문의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목표에서 11.4%로 하향 조정
- 산업부문은 기존안(2021년 발표)과 동일한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공정배출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나 탄소저감기술의 도입·적용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

부문별 2030년 배출량 목표

단위: 백만 톤 CO₂eq.

	부문	2018	2030 목표	
			기존(2021년 10월)	수정(2023년 3월)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35.0 (32.8%)
	수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소	-	7.6	8.4
	기타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 감축	-	-33.5	-37.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주: ()안은 2018년 대비 감축률.

(2) 산업부문의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감축수단 재검토

- 최근 발표된 정부안은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이 적극 반영된 결과
-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현존하지 않은 미래기술로 '30년까지 짧은 시간 내 당장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연한 접근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탄소중립 핵심기술 실현과정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초기비용과 불확실성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
 - 기술개발, 제도개선, 그린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3)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요구 확산

-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재확인
 -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선결과제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이자 난(難)감축산업에서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산업부문의 큰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발표,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조기 적용을 가속화

2023년도 주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명	지원규모 (백만 원)	수행기간 (개월)
철강	수소 유동환원공정 기초 설계 기술 개발	4,000	30
	70톤급 이상 전기로 조업시간 단축 및 전력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2,200	66
	스크랩 25% 이상 사용 가능한 300톤급 상저취전로 개발	380	66
석유화학	메탄의 직접 전환을 통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제조기술 개발	2,417	90
	나프타분해공정 부생가스로부터 고부가 화학제품 생산 기술 개발	1,950	90
	플라즈마 분해 신공정 개발	2,268	66
시멘트	혼합재 사용 증대를 위한 고성능 클링커 제조기술 개발	560	30
	무기계 미활용 자원을 활용한 혼합재 및 혼합시멘트 제조기술 개발	1,095	90
	폐합성수지 균일공급 및 연소 공정 최적화에 의한 시멘트 소성공정 연료대체율 65% 이상 대체 기술 개발	1,475	54
반도체 · 디스플레이	HFC 가스 대체 용도의 저GWP 반도체 공정가스 개발	1,460	90
	디스플레이 LTPS 절연막 식각공정용 150 이하의 저온산화지수를 지니는 F-기반 PFC 대체 가스 개발	1,850	90
	식각·증착·세정활용 공정가스 사용 최적화를 위한 배출가스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모의분석 기술 개발	1,100	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4), 「2023년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2,097억 원, 시멘트 2,826억 원, 석유화학 1,858억 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
- 올해는 43개 연구개발과제에 4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메탄 전환 석유화학 기초유분 제조, 혼합시멘트 제조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단계별 지원

(4) 감축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 선택과 집중

- 탄소중립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전략보다 성공 시 감축효과가 크고,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저감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혁신적인 탄소 저감이 절실한 산업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기대효과를 높이는 방향은 바람직
- 단기(2030년), 중기(2040년), 장기(2050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여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이상원 | 소재·산업환경실 부연구위원